

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활성화와 성숙화를 위한 제언으로 칠강산업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타산업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측의 '소재산업의 협력사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평양시멘트그룹의 회사 개요 설명과 함께 쌍용양회공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통한 한일시멘트사업 제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둘째, 한일시멘트사업의 향후 전망으로서 단순히 시멘트라는 상품의 생산판매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자원화,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이 새로운 사명으로 환경산업에 힘을 쏟아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적교류기회의 중대와 경제협력관계의 부차적 발전단계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 차례의 한국방문 경험을 토대로 한국시멘트업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새로운 사업활동도 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모든 산업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환경기술 측면에서의 한일간 연계와 협력은 앞으로 필수불가결한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플로어로부터 주제발표 내용과 한일FTA에 대한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원의 리사이클, 지구온난화 대응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기술고도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견교환, 세 번째, 한일중소기업연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양국기업간 산업협력시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의 R&D 보조금 지원제도의 필요성, 네 번째, 중소기업간 필요에 있어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일FTA에 대한 매스컴의 유행유로서의 역할의 중대성과 일반 대중으로의 경과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양국 정상에 대해 한일FTA와 관련하여 한일경제인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한일간 산업별 성공사례 등을 정리하여 제안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새로운 견해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경제협력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사례 제시는 경쟁시대에 공동대응을 통한 win-win 체제를 구축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제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더 한층의 긴밀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상호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협력관계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향후 한일 제조업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계시장의 global화와 지역경제 통합움직임 속에 우리 모두가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한일국교정상화 40년의 뜻 깊은 해에 개최된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참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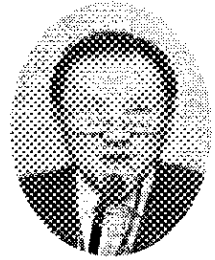
신 모든 대표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분과회 보고로서 한국측 코디네이터를 맡아 주셨던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5) 第 2 分科會 報告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제2분과회 코디네이터 보고를 맡은 동양물산 김희용입니다.

제2분과회의에서는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기업간 협력방안’에 대해 문화·서비스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시미즈 코이치로 일본측 코디네이터님, 주식회사 호텔 오후라 부사장님이십니다. 그 분의 협조하에 저희가 상호 유익한 발표와 열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님께서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측에서는 이시하라 스스무 큐슈여객철도 주식회사 사장님께서 ‘한일해협교류권의 현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한일FTA의 실현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플로어로부터도 동아시아지역의 단일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그와 함께 한일FTA 체결에 앞서 한일 양국의 win-win 관계 구축과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먼저 한국측의 문화산업의 발표에 대한 것은 21세기에 있어서 달라지는 문화의 힘을 소개하고, 경제와 문화의 상호의존성과 한일문화교류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연합 또는 유럽연합(EU)·북미연합(NAFTA) 이러한 유사한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통합을 포함하는 중

합적인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써 앞으로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측의 한일해협교류권과 관련해서는 한일FTA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FTA교섭에 장애가 되고 있는 농업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함께 경제교류의 저변인 인적교류활성화를 위한 단기체제 비자면제 조기실현 등 포괄적 제휴의 추진, 한일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국경을 초월한 전략적 기업제휴의 촉진 등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같은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편 플로어로부터는 한일 양국의 기술협력방안에 대한 소견발표가 계셨고, 그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가 문화를 좌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가 경제에 접목이 돼서 아름다움이 추구되는 그러한 문화가 경제에 접목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DNA, digital, design 의 3D가 과거와 다른 3D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자인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에는 아름다움이 개체가 되면 수치로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스미토모의 아키야마씨께서는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검혀히 받아들이면 이웃사촌이라는 일본의 속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 인재 육성에 대해서 동북아대학, 대학원등의 필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플로어에서 지적소유권에 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성심외교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토 회장님께서 양국 고교생교류를 통해서 가져온 좋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결국 서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 피부를 맞닿으로써 보다 더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분과 위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 또 주제발표를 해 주신 이어령 고문님, 이시하라 스스무 사장님,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편달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분과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과 같이 전체회의 주제발표 및 제1, 제2분과회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質疑應答

薛元鳳 議長 :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 및 1, 2분과회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자께서는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호스트 입장에서 한국측에서 한 번 누가 질문 좀... 없으십니까? 이각범 교수님, 코멘트나 질문이나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는 소감이라든지..

李珏範 IT戰略研究院 院長 : 네, 이각범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님께서 코멘트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만, 저희 당황스러움을 덮기에 충분한 공로명 장관님과 테라다 대사의 발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식견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서 주제가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주류가 되지 못하고, 다분히 감각적이고, 선동적인 그러한 의견들이 양국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두 나라가 협력해서 win-win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다 같이 밝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 해답은 오늘 두 분이 발표하신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적절하고 매우 시사 깊은 발표를 양쪽을 오가면서 들었습니다.

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들을 확산할 수 있다면 두 나라 사이에는 보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이각범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다년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으로 임하시고, 지금은 IT분야의 연구소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麻生 泰 議長 : 일본측에 대해 '준비 부탁 드립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분이랄도 질문이 계시면 일본측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카스기상이나 사쿠라이상이... 사쿠라이상, 모처럼 오셨으니까, 인상이나 특히 FTA에 대해서... 이번에 느끼신 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櫻井 健司 三菱商事(株) 顧問 : 미쓰비시 상사의 고문 사쿠라이입니다. 갑자기 지명당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출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이 회의에 참석해 오면서 FTA라고 하는 것은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2005년이 타겟이라는 것에 서로가 합의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서로 변명하지 않고, 어쨌든 요약하자면 서로 합의한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상호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아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어느 쪽에서 공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선 인식하고, 그리고 일본측도 실제상황에서의 애기와 막상 FTA라고 국가간의 협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부가 관련되고, 정부의 교섭단과 실제 업계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단언하면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경제인들이 정부측에 어떤 공을 넘겨주었는가,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부의 교섭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더욱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아, 이런 건 좀 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다면, 참가자 전원의 적극적인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서 대표단, 정부측에, 이 사람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일본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리더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사용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우리들은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유하게 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麻生 泰 議長 :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립니다에도, 대단히 예리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계속해서 일본측에서 하셔도 좋고, 우리 쪽 참가자 여러분이 하셔도 좋고... 또 한 사람, 다카스기상은 한일

관계를 다 양쪽으로 하시니까 한 말씀 코멘트를,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코멘트를 해 주시면 상당히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소 의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高杉 暢也 韓國富山제록스(株) 最高顧問 : 사실은 제가 제1분과회의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재갑 코디네이터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좀 전에 사쿠라이 고문님도 말씀하셨지만, FTA 문제를 지금까지 4, 5회 이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다뤄 왔습니다. 물론 내용은 진전이 있습니다만, 2005년 말까지 정부측에서 협상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것에 저희들 경제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1분과회의에서 제안했던 것은 ‘이번 6월의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능하면 이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이것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정계, 당연히 우리들 경제계에서도 나서서 하나의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FTA를 추진하는 것을 정상회담 때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것을 이 공동성명 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제가 아까 제1분과회의에서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너무 주제넘을지 모르지만, 이번 회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薛元鳳 議長 : 아까 그렇지 않아도 공동성명을 심의하는 회의가 오찬회 때 있었

는데, 아마 상당히 양 단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다카스기 고문님의 뜻에 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소 의장님...

麻生 泰 議長 : 예, 그 뉘앙스, 매우 민감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마음가짐, 그런 걸 반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짧은 기간에 좀 더 이 분위기를 무르익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薛元鳳 議長 : 그러면 시간도 거의 다 됐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일본측 공동의장으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아소 유타카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소 유타카 의장님께 총괄정리 한 말씀을 더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議長 : 네, 지금 마지막에 사쿠라이씨 이외에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도 들어갔었습니다만, 솔직히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공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는 점이 사실은 저도 매우 신경이 쓰여서 어제도 일본 정부 관계자분께 여쭙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한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 양국 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로서는 꼭 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공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정부

의 책임, 또는 관료들의 책임이 아니라 역시 우리들,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다가가 설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으면 단지 비판에 그치고 탈 것입니다.

저희 경제인회의가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역사를 가지고,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6월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 내에서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라는 문제, 농업문제, 교섭·협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하기 쉬운 형태로 경제인들이 그 지원을 해 나가야 하고, 정치가들이 그것을 결단내릴 수 있도록 협상을 하기 좋은 환경을 경제인회의, 즉 경제인들로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점점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진행해 온 회의가,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위기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협상을 하기 좋은,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디 한 일간을 위해서 FTA가 체결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우리 아소 유타카 의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win-win을 하자 하는 것이 모든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본인은 생

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인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되겠고, 이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도 일본측 공동의장을 맡아 같이 회의를 주재해 주신 아소 유타카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고, 사무국에서 다음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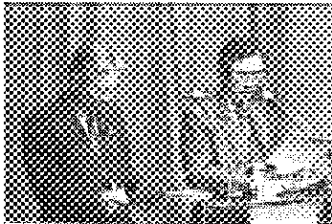
司會 : 네, 설원봉 의장님, 아소 유타카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고, 2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후 3시 30분부터 폐회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Coffee Break>

7. 閉 會 式

(1) 共同聲明 採擇

趙錫來 議長 :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국 단장단 및 전문 위원장에 의해 공동성명(안)이 검토·심의되었기에 사무국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 공동성명(안)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는..... (이하 생략)

※ 『공동성명』 본문은 본 보고서 Ⅱ항에 기재

趙錫來 議長 : 감사합니다. 방금 한일경제협회 허전무께서 공동성명안을 낭독했습니다. 공동성명이 이상과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신지요?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일본측의 세토 단장님도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團長人事

司會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양국 단장님의 폐회인사가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조석래 한국측 단장님의 폐회인사가 계시겠습니까.

趙 錫 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토 유조 단장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과 한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발표자들과 또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양국간의 경제협력 전반에 걸쳐 진지하고 활발한 토의를 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회의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최근 들어 사회분위기가 어려워져서 걱정도 많이 했고, 일부에서는 연기하자는 얘기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양국간의 대화를 진솔하게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신 덕분에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 협회는 회의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양국 대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서로가 더욱 친숙해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앞으로 더욱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로써 양국 경제인이 주도하여 우리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사를 드리면서 돌아가시는 길이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이 중요한 회의여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네. 조석래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측의 세토 유조 단장님의 폐회인사말씀이 저시겠습니까.

瀬戸 雄三
日本側 代表團 團長



이틀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일·일한경제인회의는 그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어려운 사기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조석래 회장님과 다양한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이런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어서 어제와 오늘 회의를 개최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토론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과거에는 없었던 솔직한, 흥금을 털어놓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양

국 간에 서로 공통된 문제로서는 한일간의 역사인식문제,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현황인식, 부품산업을 비롯한 기업간의 기술협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농수산업에 대한 양국간에 걸친 다양한 문제, FTA협상 담보상태를 둘러싼 초조함, 동북아시아의 선진 2개국인 한일 양국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경제관계는 물론 다양한 국면에서 상호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회의의 모두에서 인사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을 적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이렇게 짝튼 우정의 짝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할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이 경제인회의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상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 다음으로는 서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는 것, 그 다음 단계로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일본측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이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의 운전기사는 25년의 경력을 가진 운전기사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그 분에게 ‘당신은 일본사람입니까? 일본사람이라면 혹시 한국에서 뭔가 곤란한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많은 우정이 짝튼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우정과 교류가 국가와 국가의 우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경제인회의도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발점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주신 한일경제협회의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대표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일본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는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개최될 것이 조금 전의 오찬 때 대표단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테라다 대사님의 노력도 힘입은 바 큼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활한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司會 : 세토 유조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훌륭하게 회의를 주재해 주신 조석래 단장님과 세토 유조 단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본 회의 진행을 위해 훌륭하게 통역을 맡아 수고해 주신 김혜원, 이정남, 이지영, 반성인 네 명의 동시통역사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일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 예방이 1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측 단장단 여러분께서는 4시 15분까지 현관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료>>

< 附 錄 >

第37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關聯
報道資料・新聞記事

한·일경제협회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37회 경제인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나용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등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등이 참가한다.

경향신문 2005/4/13 수요일

한·일 경제인 한자리 모인다

250명 14~15일 서울서

독도 긴장 해소등 관심

독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경제인회의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 조희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용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

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떻게 한·일간 부(富)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공노명 전 외무부장관), '중증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양국 정상의 메시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측 대표단은 행사를 마친 뒤 이해진 총리를 예방한다. 양측은 15일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고 경제계가 양국 간 긴장해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규기자

내일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식

양국 정상 축하메시지 ‘주목’

경색관계 해소 언급될듯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식에서 각각 축하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남길지 주목된다.

도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8명의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행사가 끝난 직후인 15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 일본 정부 또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경제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양국 정상 모두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로 예정돼 있다”며 “일단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열리는 행사인 만큼 격려의 의미가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내용은 당일 개최식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주변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일간 경제협력이나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메시지가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경제인들은 15일 행사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양측 경제계 대표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한일간 경색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해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은 이번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이래 일본 국민들에게 확산돼왔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최근 한일 관계로 인해 엄한(厭韓) 감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해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한일 경제인들이 지 금부터라도 서로 원원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얼어붙은 한·일관계 경제 협력으로 풀자”

‘한·일 경제인 회의’서 한목소리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일 관계에 찬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제3차 한·일 경제인 회의’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독도 등의 문제가 경제 협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오히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경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측 대표로 조선로동당 외무성(한·일 경제협력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면 불만을 양국 우정의 해로 정한 마가 되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난 36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 우의를 다졌은 경제인 회의들 통해 한층 높은 협력 관계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을 대표한 세토 유조(瀬戸雄三) 아시아태평양 상임의(일·한경제협력장)는 본지 기자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둘 사이엔 일본 정정에게 한국의 분위기를 잘 전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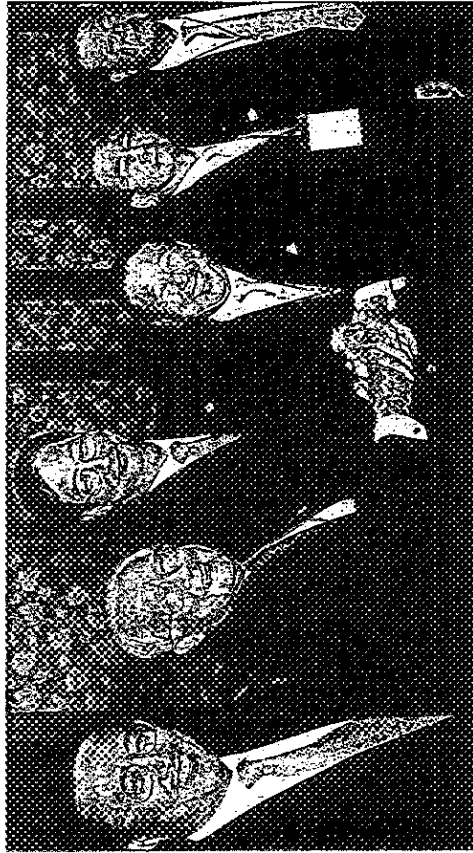
독일과 타키를 순방 중인 도무현 대통령은 전비호 외교교통상부

아태통상성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된다”며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단란한 한·일 관계를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축사에서 “미래 지향적 인·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두 나라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축사는 아마모토 에이치(山本亨二)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 공사 사가 대독했다. 이명박 서울 시장도 주최 측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40년 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될 때 대화 생이던 나는 과거 청산에 만지려며 수교에 반대했다”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조석래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쿠다 히토시(奥田博) 일본 게이단렌(経団連) 회장, 사에시마 추미오(齋藤秀男) 대영양 시멘트 사장 등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권혁주·이승남 기자

woongjoo@joongang.co.kr

중앙일보 제12523호 40판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손 집은 한·일 경제계 한·일 경제계 인사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참석 인사들이 손을 맞잡고 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한·일 관계를 회복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왼쪽부터 타키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 대사, 세토 유조 일·한 경제협력장, 한덕수 경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석래 한·일 경제협력장, 박태준·김상하 한·일 경제협회 명예회장. (관계기사 3면) 조용철 기자



韓·日 경제협력 이상없다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하지만,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한국측 주요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주완중기자 (블로그:wjoo.chosun.com)

朝鮮경제 —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韓·日 재계 “FTA체결에 힘쓸것”

250명 經協회의 열려

독도 영유권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한일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투자 확대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경제협회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은 박태준(朴泰俊)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포스코 명예회장)은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해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세대에는 한일 관계가 좋았다”면서 “일본 인사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협정에 대해서도 “당시로서는 시간을 더 끌었으면 돈은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빨리 내리는 게 옳았다”고 적극 옹호했다.

이에 앞서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장(오른쪽)과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장이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주완중기자 (블로그:wjoo.chosun.com)

(趙錫來) 효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한일 우정의 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번 한일 간의 갈등이 새롭고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쿠다 히로시(奥田碩)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도 기조연설에서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긴밀히 협조하자”고 말했다.

조청래기자 (블로그:hrcho.chosun.com)



손 맞잡은 韓日 경제인 14일 열린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양국 단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한 부총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원대면 기자 ss00@donga.com

韓日경제교류통해 갈등 풀자

양국 경제인회의의 개막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가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개회식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각각 축하 메시지를 보내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 전비호(全飛虎) 아태동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위해선 국민적 차원의 교류, 특히 경제 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이 앞장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일본 측 단장인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양국간 상호 보완과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00@donga.com

“역사인식차 불구 韓日경협 강화를”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개막... 250여명 참석

독도 영유권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틀간 일정으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조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너무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면이 있다”며 “참다운 성과를 이루려면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밝히면서 흥금을 털어 놓고 실속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임역도 “최근 양국 관계가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양호한 상황이 아니다”며 “그러나 양국간 협력의 싹을 자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우호적인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련 회장도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양국 경제인들은 정부, 학계와 협력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각국의 국내 문제 조율에 힘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보내 “양국이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축사를 보내 “경제계의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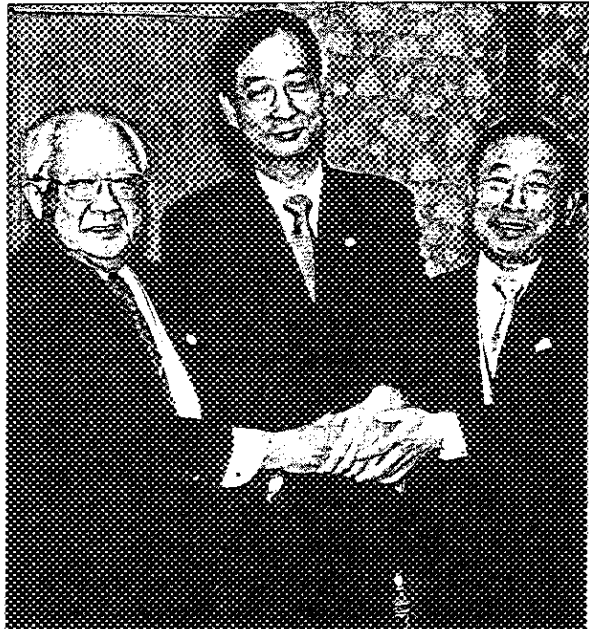
이날 한국측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라응한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오쿠다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양국 경제인 대표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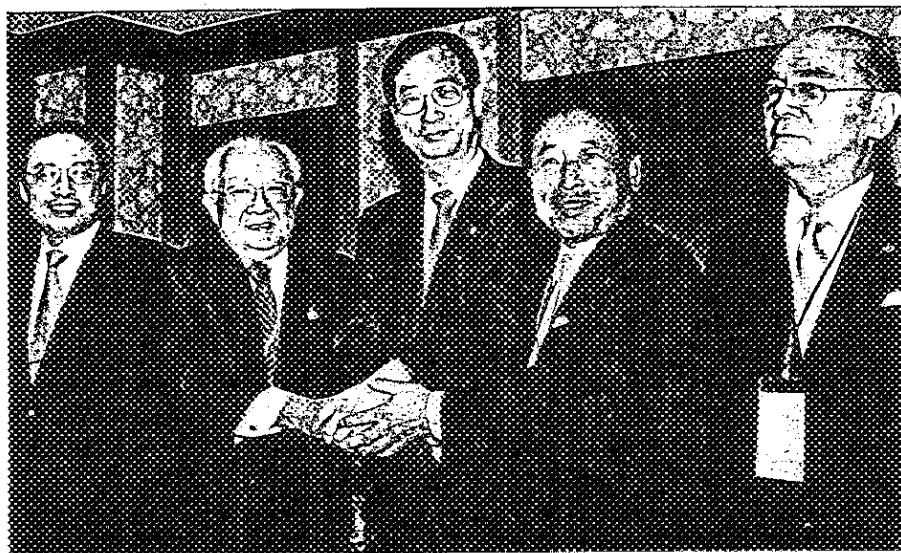
유클리기자 bryu@hk.co.kr

한국일보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한덕수(가운데) 경제부총리와 한일경제협회 양측 대표인 조석래(오른쪽) 효성 회장, 세토 유조 아사히 맥주 상임역이 14일 서울 강릉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조영호기자



손잡은 한·일 재계 14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와 무관하게 경제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일본측 회장, 한국수출입협회 회장,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한국측 회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관련기사 A15면 <박상선기자>

‘독도’ 불구 경협 더 세계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박태준씨 특별공로상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인사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따른 양국간 긴장 관계에 얼마이지 말고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가 지난 40년 동안 양국이 쌓아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한국측 기조강연에 나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일련의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자칫 수년 간 무르익어온 우호적 경제 관계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99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과감한 협력과 개방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재단재연합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진정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중국·일본 3개국 투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선구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오쿠다 회장은 특히 소니와 삼성전자가 역점패널 분야의 제휴와 특허 공유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를 들면서 “양국간 FTA는 한국의 부품산업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중소 부품산업과 연계를 심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측에서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석래 회장 외에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하 삼성사 회장, 나용찬 신한금융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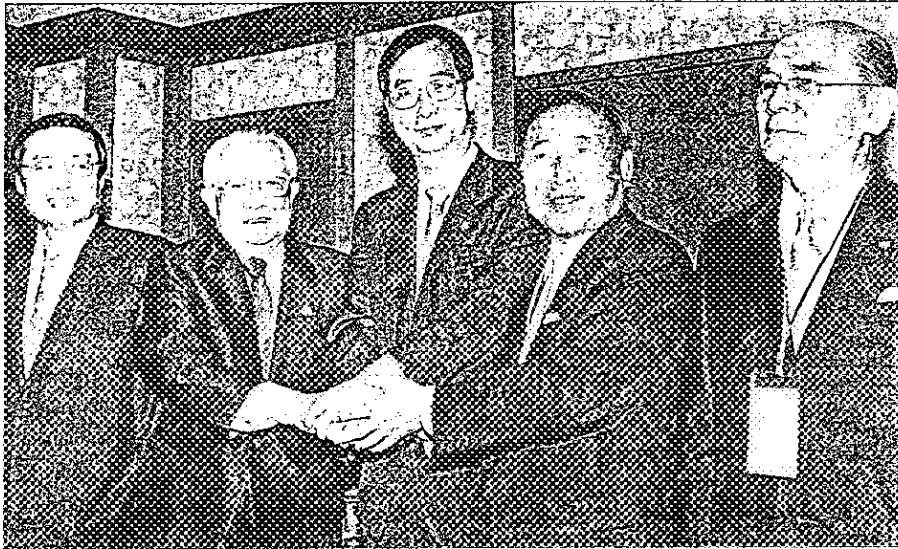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수출입협회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막 축사를 했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시아해협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관련 회장, 와타라시 키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무라 마사아 일·한경제협회 상담역이 한·일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15일 이태한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최근 경색된 양국 관계가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외교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일 양측은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민우기자



손잡은 한·일 재계

14일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와 무관하게 경제협력에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일본측 회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한국측 회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관련기사 A15면 <박상선기자>

“경제는 독도에서 벗어나자”

한일경제인회의 한목소리…박태준씨 특별공로상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인사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따른 양국간 긴장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에 이착지도록 해야 한다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가 40년 동안 양국이 쌓아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측 기조강연에 나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일련의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지칠 수년 간 무르익어온 우호적 경제관계에 약경향이 생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9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과감한 협력과 개방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산업대신 회의장은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진정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중국·일본의 3국 무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선구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소니와 삼성전자가 액정 패널 분야 제휴와 특허 공유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를 들면서 “양국간 FTA는 한국의 부품산업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중소 부품산업과의 연계를 심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사 문제의 해법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석래 회장 회장을 비롯해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강하 삼양사 회장, 나용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시아해부 담당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련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담당역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이 한·일 양국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축하사에서 “한·일 교역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단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섰고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무역역조가 주변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우기자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돼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맥주 상임역), 한덕수 경제부총리,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그룹 회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韓·日재계 “FTA 협력”

한일경제인 회의

한·일 양국 재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재계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백50명의 양국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를 우호적인 분위기로 회복하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앞장서

노력하는 동시에 한·일 FTA(자유 무역협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동북아시아에서의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도요타자동차 명예회장)은 ‘중층적 한·일 관계를 향한 경제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중·일의 경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연구개발기구에서 3국간 FT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chsan@hankyung.com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돼 이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맥주 상공업), 한덕수 경제부총리,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그룹 회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nankyung.com

韓·日재계 “관계 정상화 앞장설것”

한일경제인 회의

한·일 재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재계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백50여명의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양국 기업인들은 현안인 자유무역 협정(FTA)의 조기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의 양국 갈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기업인들이 앞장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키로 다짐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를 우호적인 분위기로 화

복하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앞장서 노력하는 동시에 한·일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동북아시아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맥주 상공업)은 지난해 한·일경제인회의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 중학생의 감상문을 소개하며 “모처럼 키운 우호의 사이를 깨뜨릴 수 있도록 경제인들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일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도요타자동차 회장)은 한·중·일 3국의 경제연대를 강조

한 ‘중층적 한·일관계를 향한 경제계의 역할’을 발표했다.

한편 해외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지난 40년간 양국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데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최근의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 경제인들이 앞장서 일본 사회 전반에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을 널리 확산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공업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15일까지 계속된다. 김형호 기자 chs@hankyung.com



손잡은 韓日경제인 독도 및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로 한일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제37회 한일-일본 경제인회의가 열려 양국의 경제발전 협력을 모색했다. (오른쪽부터) 박태준 한일경제인협회 명예회장, 조석려 한국 축 회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세토 유조 일본 축 단장. ★관련기사 2면 /이호재기자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서울경제

“韓·日 경제협력은 강화돼야”

盧대통령·고이즈미 총리 양국 갈등불구 '한목소리'로 밝혀

韓·日경제인회의 축사... 정경분리 시사 주목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최근의 독도 문제와 교과서 역사왜곡에 따른 한일 양국의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강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7회 한일-일본 경제인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경제대국으로서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며 “현안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을 서둘러 동북아 지역협력의 불교를 트자”고 제안. 정치와 경제를 분리 처리할 것임을 강하

게 시사했다.

고이즈미 총리 역시 야마모토 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양국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축 단장인 조석려 효성 회장은 경제인회의의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한일간 갈등은 새롭고 성숙한 관계로 거듭나는 데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신뢰관계를 새로이 하는 게기

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토 유조 일본 축 단장도 “최근의 양국관계는 역사의식 파생에 따른 문제로 양호하지 않은 것은 우려할 만하지만 양국은 동아시아 선진 2개국으로서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에서 한일간 향후 경제협력과제로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임역은 이 자리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무신강령

속한 메시지를 통해 "내년 FTA 관련 실질협
작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가
민간차원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기운을 고
양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70 —

경향신문

한·일정상 “FTA체결 기대”

盧대통령·고이즈미 ‘양국경제인 회의’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한·일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전비호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

와 번영을 위해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장차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이날 야마모토 에이지(山本第二)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현재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명실공히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게 돼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양국 정부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의 폭넓은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규기자

세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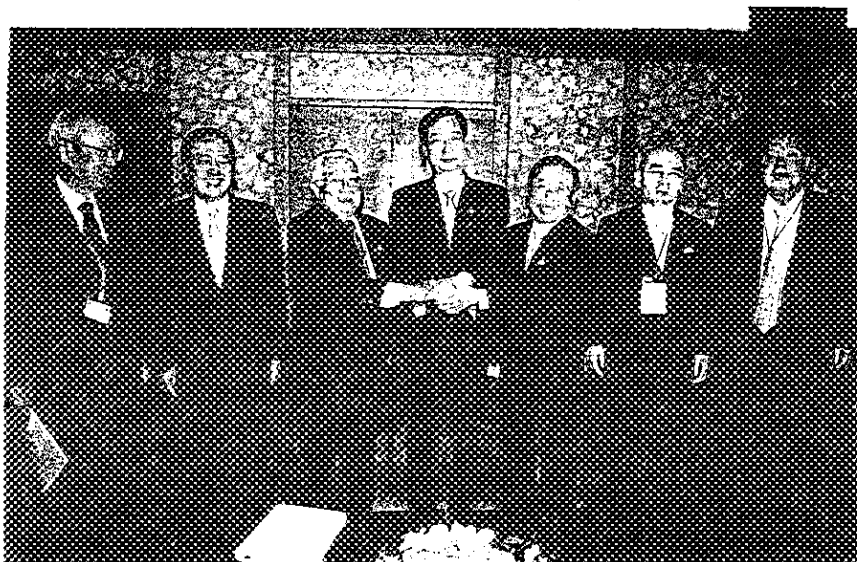


韓·日 경제인 회의

한국측 회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독도 영유권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14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와 무관하게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왼쪽부터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일본측 회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조석래 한일경제인협회 한국측 회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주성 기자



韓·日 경제인 한자리에-

한일 경제인회의가 1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다유 다카시 신일본제철 명예회장,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석래 효성 회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왼쪽부터)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희기자

한·일정상 “FTA체결 기대”

盧대통령·고이즈미 '양국경제인 회의'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한·일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전비호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

와 번영을 위해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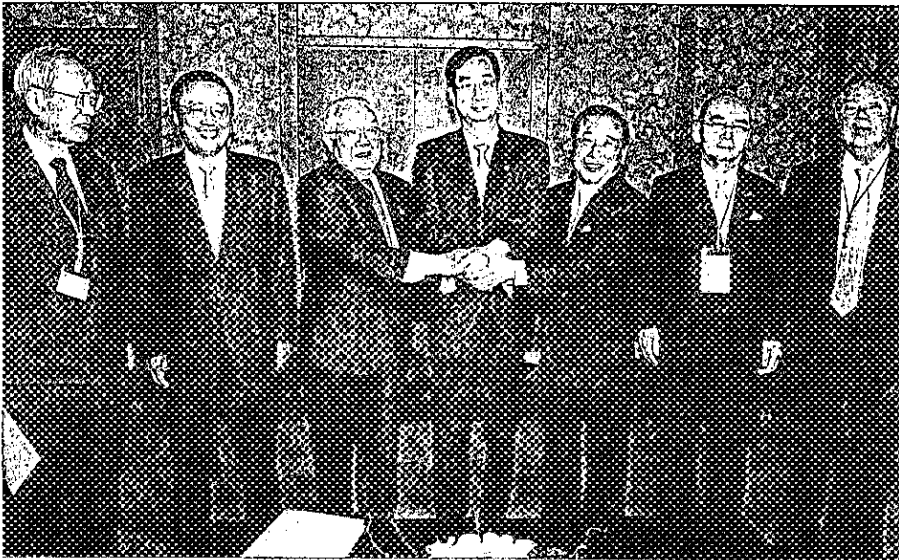
노대통령은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장차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이날 아마모토 에이치(山本榮二)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현재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명실공히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게 돼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양국 정부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의 폭넓은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규기자



손 맞잡은 한·일 경제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 세번째) 및 세토 유조 일본측 회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원준기자

(관련기사 9면)

한·일 경제협회 회의 오늘까지

韓·日 FTA 조기타결

中포함 3국 분업 공감

독도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 경제인들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을 꼽았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주최로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 37회 한·일·한 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한·일 우정의 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바른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번 한·일간의 갈등은 새

롭고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데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신뢰관계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간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련 회장은 '중증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현'이라고 본다"며 한·중·일 3국의 경제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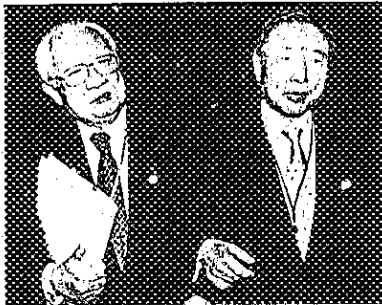
韓日 재계회의 개최... 양국 정상 축하메시지 盧 “과거사 해법위해 협력강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간 냉각세가 형성된 가운데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과거사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양국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이와관련,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 촉진이 필요하다”고 명확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14~15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일경제인협회에 양국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의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7회 한일경제인협회는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 최근 불거진 한·일 관계에 따라



조석래 한일경제협회장(오른쪽)과 세로유조 일한경제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명을 한채 입장하고 있다.

한문사(가) yskang@jod.co.kr

고이즈미 “민간 협정체결 기운 고양”... 독도등 언급 회피

양국 정상들의 메시지가 관심을 집중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축하메시지 중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에 부합하는 과거사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며, 독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의 FTA추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축하메시지에서 “2005년내로 한일경제인협회가 실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협정체결을 위한 기운을 고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미래를 위하여 젊은이들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양국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번 회의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 회장(조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경제인 한일관계에 무호한 분위기로 회색화되어 양국 경제인들이 앞장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혜를 모아 동북아시아에서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일련회 단장인 세로 유조 회장(이시카와구 상남회)도 개회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대를 목표로 한 한일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인들은 15일 행사를 마친 뒤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문제 등에 대한 양측 견제인 대표들의 협상과 발언을 예정했다.

또 세로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겸 차장의 일본측 대표단은 15일 오후 이한진 국무총리에게 여망,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회장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 회장, 나용찬 신한금융투자 회장, 한영관 삼성생명 회장, 윤준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에선 세로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오쿠다 히로사 원한경제인협회 회장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한문사(가) yskang@jod.co.kr

“전략적 기술이전·투자확대 절실”

한부총리 축하... 무역불균형 심각 지적

한부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화제라고 있는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기업간 전략적 기술 이전이나 투자확대를 양국의 경제협력에 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14일 제37회 한·일 경제인 회의 축하사를 통해 “양국의 산업구조나 기술수준의 차이를 넓게 봐야 한다. 200여년에 걸친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한일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기술 이전 및 투자확대 등 기업간 교류

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양국의 본과 회의 주제로 한·일 기업간 경제연대와 협력강화를 채택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산업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 연간 2억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해에는 300억달러를 넘어서 670억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수출 1위 수출 3위)2대 투자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컴퓨터·일본의 3대 교역 파트너로서 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한·일 FTA도 중점안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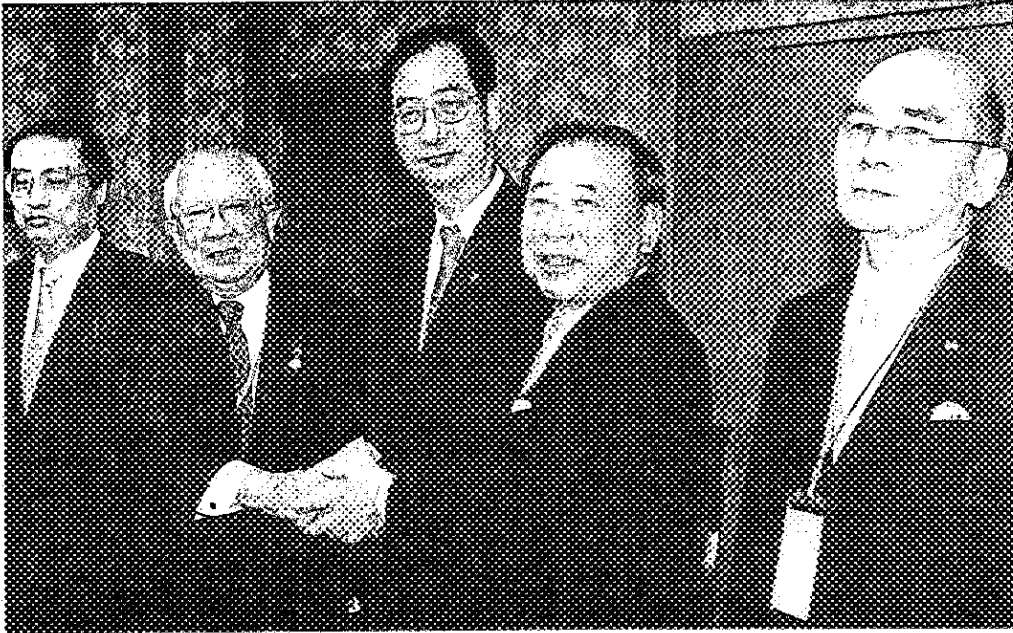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일본 다나카 사다카즈 재무장관 만나 “한·일 FTA 협상의 활성화와 부흥소세 분야 협력강화를 한의한 바와 같이 양국간 교류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양국 기업인들이 경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부총리는 “지난 40년간 1년동안 1만명에 불과하던 양국간 원리가 이제 하루 1만여명에 달하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 듯이 양국이 경제, 정치, 문화들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자”고 재차 말했다.

한문사(가) hanhun@jo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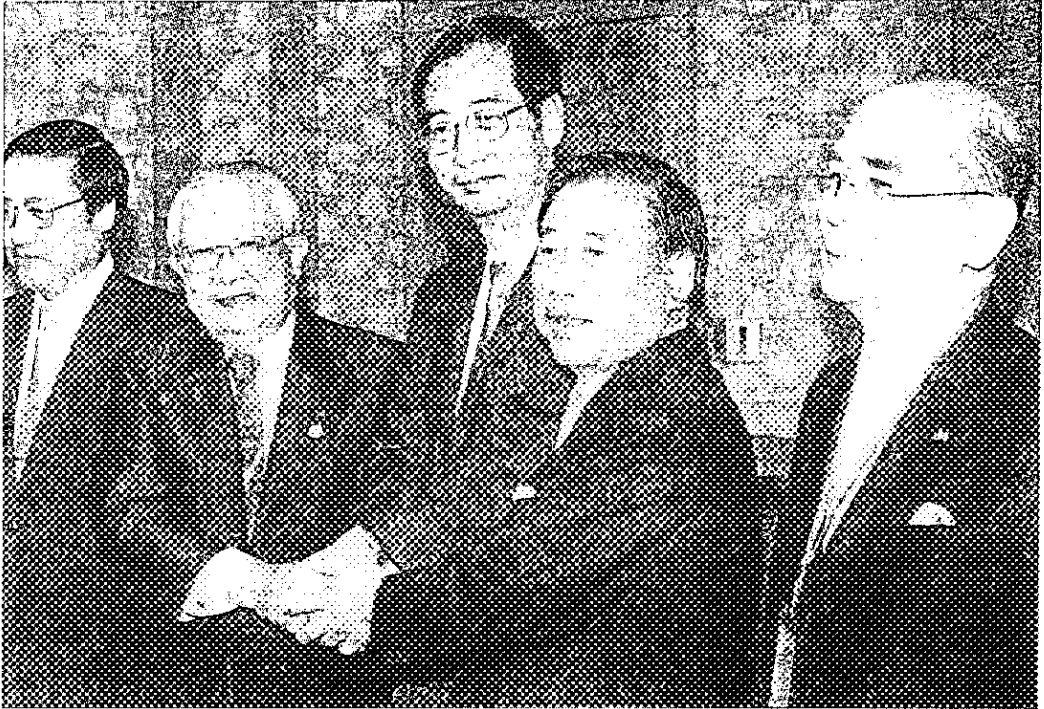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손잡은 韓日 재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일본 경제인회의에 참석,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오른쪽 2번째), 세토 유조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Korea Herald



BUSINESS IS BUSINESS — Han Duck-soo, Korea's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third from right), holds hands with Cho Suk-rai, chairman of the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second from right), and his Japanese counterpart Yuzo Seto yesterday at the 37th Korea-Japan &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in Seoul.

The Korea Herald

“韓日 연내 FTA 체결...독도갈등 냉정 대처”

양국 경제인 200명 촉구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은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일 양국의 재계인사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째 열린 한일(韓日)·일한 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일 재계인사들은 공동 성명에서 “(독도 문제 등) 최근 부상한 양국 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고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하고, 양국 국민도 경제·문화 등 비(非)정치적인 면

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 맥주 상담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일본의 대표적

데라다 前주한日대사 “양국관계 사이클있어”

인 역사 왜곡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일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다.

한·일 재계는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며 “올해 내에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한국측 기대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전 주한일본 대사는 자신의 대사 시절 경험을 들어 “한·일 관계에는 업다운(up-down)이 있다”며 ‘사이클’론을 제기했다.

즉 일본 문화 개방 초기였던 2000년과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에는 한·일 관계가 좋았으나 2001년, 2005년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 그는 “2001년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7번이나 불러 갔었다”고 회상했다.

조형래기자 (☎02)hrcho.chosun.com

韓日年内FTA締結…獨島(ドクト)葛藤、冷静対処

-両国経済人200人促求-

朝鮮日報 4月16日(土)

韓日両国の経済人らは、両国が葛藤していることに対し懸念を示し、両国は未来指向的な観点で冷静に対処すべきだと促した。

韓日経済協会は15日、ソウル・新羅(シンラ)ホテルで韓日両国の財界関係者200人あまりが参加した中、2日間にわたって開かれた韓日・日韓経済人会議で、このような内容の共同声明を採択した。

韓日の財界人らは共同声明で、「(独島(ドクト)問題など)最近浮上している両国間の政治・外交的葛藤が、友好な韓日関係に否定的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指摘し、「両国政府は未来指向的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ほか、両国国民も経済・文化など非政治的な面で両国関係が持続的に発展して行けるよう全力を尽くすべきだ」と呼びかけた。

瀬戸雄三・日韓経済協会会長(アサヒビール相談役)はこの日記者会談で“日本企業が日本の代表的な歴史歪曲団体である‘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に対し支援しているのでは”という質問に対し、“日本企業が会社やグループ次元で支援したことは決していない”と述べた。

韓日財界は、また、韓日自由貿易協定(FTA)の推進と関連、「韓日FTAは両国が21世紀の戦略的パートナーとして変化していくことを象徴する第一歩」としながら、「年内に包括的で高い水準のFTAを締結すべきだ」と主張した。この声明書は、日本に農水産物分野を積極的に開放するよう促す韓国側の期待も盛り込まれた。

一方、この日の討論で前駐韓日本大使寺田輝介氏が、自分の大使経験を取り上げ「韓日関係にはアップ(UP) & ダウン(DOWN)がある」とし、「サイクル論」を提起した。

日本文化開放初期だった2000年と韓日ワールドカップが行われた2002年は、韓日関係が良かったが、2001年、2005年は日本の歴史教科書問題で、両国の関係が悪化したとのこと。寺田氏は“2001年当時、韓国の外交部長官に7回も呼ばれていった”と回想した。

韓日 정치-외교 갈등 미래지향적으로 풀길

양국경제인 공동성명

제37회 한일(韓日)경제인회의에 참석한 두 나라 경제인들은 15일 “최근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우호적인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두 나라 국민은 경제와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들도 각 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와 관련해 “한일 FTA는 두 나라가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며 양국 정부에 연내 체결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상수 기자 ss00@donga.com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韓日政治-外交葛藤を未来指向的に解くよう

- 両国経済人、共同声明 -

東亜日報 4月16日(土)

第37回韓日経済人会議に参加した双方の経済人たちは15日、「最近、両国間の政治、外交的な葛藤が両国の友好関係に悪影響を及ぼすものと憂慮される。」と述べ、「両国政府は未来志向的な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べきだ」と述べた。

彼らはこの日、ソウル中区獎忠洞(チュング・チャンチュンドン)の新羅(シルラ)ホテルで開かれた二日目の会議終了後に発表した共同声明で、「韓日両国の国民たちは、経済と文化など、非政治的な面では持続的な発展のために全力を尽くすべきだ。このため、両国の経済人たちも格別な努力を傾ける」と念をさした。

また、両国の自由貿易協定(FTA)問題に関して「韓日FTAは、両国が21世紀の戦略的なパートナーシップ志向関係に変わってきていることを象徴する第一歩だ」と述べ、両国政府に年内締結を強く建議することを期した。

“연내 한·일 FTA 체결 양국 기업인 적극 노력”

한·일 경제인회의 폐막

한·일 재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제37차 한·일경제인회의가 15일 폐막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올해 안에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도록 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FTA를 바탕으로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두 나라 경제인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부품소재·문화·서비스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고교생의 교류를 늘리는 등 두 나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인적 교류 확대 차원에서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토록 양국 정부에 적극 권유키로 했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해온 운명적 이웃”이라며 “지금의 정치·외교적 갈등에 대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오쿠다 히로시(奥田碩) 일본 게이단렌(経団連) 회장(도요타 자동차 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재계는 양국 관계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있으나 (헛지 않아)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양국 경제인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기업 간 협력 방안 외에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다.

공노명(전 외무부 장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15일 초청 강연에서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시정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 소장은 또 “일본은 ‘아시아에 손해와 고통을 준 과거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라다 테루스케(寺田輝介) 일본 외신기자클럽 이사장(전 주한 일본대사)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 고교가 늘어나는 등 일본에서 친한(親韓) 감정이 꾸준히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247개 교로 영어에 이어 둘째로 많다는 것이다. 그는 또 “2001년에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었으나 그해 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풀렸다”면서 “한·일 관계는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라다 이사장은 “최근 한국을 다녀온 일본 사람들은 반일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주·이승녕 기자

woongjoo@joongang.co.kr

韓日FTAの年内締結に向けて両国企業家が積極的に努力

— 韓・日経済人会議閉幕 —

中央日報 4月16日(土)

韓日の財界人事250名余りが参加した中、14日ソウル新羅(シンラ)ホテルで開催された第37回韓日経済人会議が15日閉幕した。参加者はこの日共同声明を採択し、年内に韓日間の自由貿易協定(FTA)が締結できるよう、両国の政府に強く求め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韓日FTAを本に中国等を含む東北アジア経済共同体をつくるのに両国の経済人が共に努力することとした。また、部品素材・文化・サービス産業の協力を強化し、両国の学生交流を増やす等、両国の友好増進のための事業を共にすることにした。両国の経済人は人的交流拡大のため、短期滞在ビザを免除する協定を締結するよう、両政府に対し積極的に勧誘することにした。

彼らは共同声明で「韓日両国は、自由民主主義を市場経済という価値観を共有してきた運命的な隣国」であり、「今の政治・外交的葛藤に対し、両国政府が未来指向的な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事が望まれる」とした。会議へ出席した奥田碩(日本経団連会長、トヨタ自動車会長)氏は、本誌記者とのインタビューで「日本の財界は両国の関係が早く復活できるよう望んでいるが、(容易なことではないので)憂慮が深い」と話した。両国の経済人は二日間開かれた会議で、企業間協力の外、独島(ドクト)と歴史教科書問題に対する対策についても話し合った。

コン・ノミョン(孔魯明、前外務部長官)ハンリン大学日本学研究所長は、15日の招請講演で「日本は過去の侵略戦争に対する反省と、誤った歴史認識を是正する事に消極的ではない」と話した。コン所長はまた、「日本は『アジアに対し、損害と苦痛を与えた過去を反省し、心から謝罪する』と述べた1995年村山富一前総理の談話精神をもう一度考えるべきである」と付け加えた。寺田輝介・日本外信記者クラブ理事長(元駐韓日本大使)は、「韓国語を教える日本の高校が増える等、日本で親韓感情が徐々に広がっている。」と話した。現在韓国語を教える学校の数が247で、英語に続いて二番目に多いということだ。寺田氏はまた「2001年にも歴史教科書の問題が起きたが、年末にあった首脳会談で両国の関係が緩んだ」、「韓日関係は良くなったり悪くなったりのサイクルを繰り返しながらどんどん発展していく」と述べた。寺田理事長は「最近、韓国を訪れた日本人は、反日感情をほとんど感じられなかったと話していた」と付け加えた。

“일본 기업들, 새역모 지원 안해”

세토 일·한 경제협회장

“일본 기업들은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다.”

14,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차 한·일 경제인회의에 일본 측 단장으로 참석한 세토 유조(瀬戸雄三·사진) 일·한 경제협회장(아사히 맥주 상담역). 그는 15일 오후 폐막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가 속한 아사히 맥주도 새역모를 지원한다고 인터넷 등에 유포됐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아사히 맥주 고위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나카모 다카노리(中條高徳)가 교과서 개정 모임의 개인적인 후원자인데, 그게 아사히 맥주가 모임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와전됐다는 것



이다. 세토 회장은 “나카모에게 역사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아사히 맥주의 직함을 쓰

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아사히 맥주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세토 회장은 “많은 일본 기업이 아사히 맥주와 같은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새역모를 지지하는 일부 기업인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 차원일 뿐 기업들은 새역모를 후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인 대다수는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데 일부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동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역사 인식 문제를 대화와 외교로 해결하지 못하고 ‘폭발’ 상태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日本企業、新歴会支援せず”

－ 瀬戸日韓経済協会長 －

中央日報 4月16日(土)

「日本企業は‘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新歴会)’を決して支援していない」

14、15日ソウル新羅(シンラ)ホテルで開かれた第37回韓日経済人会議で日本側の団長として出席した瀬戸雄三・日韓経済協会長(アサヒビール相談役)は15日午後、閉幕記者会見で韓国側記者も質問に対しこのように答えた。

瀬戸氏は「私が属しているアサヒビールも新歴会を支援しているとインターネット等に流布されているが、事実無根である」と述べた。1980年代アサヒビールの役員を務めて退職した中条高德氏が教科書改正の集まりの個人的後援者であるが、それがアサヒビールがその集まりに対し支援しているように訛伝したと述べた。瀬戸会長は、「中条氏に歴史に関連した発言をする場合は、アサヒビールの肩書きを使わないでほしいと要求した」と付け加えた。現在中国では歴史教科書歪曲の問題でアサヒビール不買運動が起こっている。

瀬戸会長は「多くの日本企業がアサヒビールのような誤解を受けている」とし、「新歴会を支持する一部の企業家がいるが、それは個人次元だけで、企業は新歴会を後援していない」と強調した。瀬戸会長はまた、「日本人の多くは韓国が好きなのだが、一部が問題を起こしている」とし、「東アジアを率いる両国が歴史認識問題を対話と外交で解決できず、‘爆発’状態へ向かうのは残念だ」と述べた。

“독도문제 양국정상이 풀어야”

韓日경제인 회의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은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 관광·레저 개발과 정보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단기 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양국에 촉구했다.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일정을 마쳤다. 공동성명은 “최근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특히 연내 타결을 추진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한·일 FTA 연내 체결 협력을 포함해 △산업무역회의 개최 △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한·일 고교생 교류 △양국 중소기업 상호보완사업 등에서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어럼 전 문화부 장관은 특히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정치적 통합을 포함하는 종합적 커뮤니티 건설에 앞서 첫 단계로 동북아 문화 커뮤니티(NEACC)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라다 데루스케 전 주한 일본대사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악화된 양국관계의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민우기자

獨島問題 両国首脳が 解くべき

- 韓日経済人会議 -

毎日経済4月16日(土)

韓国と日本経済人等は最近悪化されている韓・日関係にもかかわらず、両国関係の持続的な発展の為、全力を尽くすとの意を表明した。また観光、レジャー開発、情報サービスの交流促進の為に、短期ビザ免除等、人的交流条件緩和の為の努力を両国に促求した。

第37回韓・日経済人会議に出席した両国経済人らは15日ソウル新羅ホテルでこのような内容を含んでいる共同声明を採択し、二日間の会議日程を終えた。共同声明は“最近浮上している両国間の政治的外交的な葛藤が友好的な韓日関係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の懸念を表明し、“両国政府は未来志向的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こと”を要求した。

両国経済人等は特に 年内妥結を推進中である韓・日自由貿易協定（FTA）と関連し、両国はFTA締結を通じ調和しかつバランスの取れた分業構造を構築することにより東アジア共存共栄の好循環を作り上げようとの認識を共にした。両国経済人らはこの日韓日FTA年内締結協力を含め △産業貿易会議開催 △訪日輸出促進団派遣 △産業技術協力財団事業 △韓日高校生交流 △両国中小企業の相互補完事業などで協力することに合意した。

李御寧前文化部長官は特に ‘韓・中・日文化共同体の可能性と問題点’ というテーマ発表を通じ “経済政治の統合を含む総合的コミュニティ 建設に先立って第一段階として東北アジア文化コミュニティ（NEACC）設立が必要である” と述べた。

寺田輝介 前駐韓日本大使は “来る6月に予定された韓・日首脳会談を通じて悪化された両国関係の解決策を期待する” と述べ 注目を浴びた。

“韓·日 FTA 연내체결 필요”

양국 경제인회의 성명서 채택

대기업 새역모 지원 간접 시사

세트 유조 일·한경제협회장(아사히맥주 상단역)은 15일 “아사히맥주 등 일본 기업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 결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 무근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새역모에)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밝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새역모는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의 ‘몸통’으로 후소사 출판의 왜곡 교과서 채택에 앞장서는 단체다. 특히 한국 등 주변국의 교과서 왜곡 반발에 대장 간섭으로 맞서며, 일본 문부성을 측면 지원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새역모에 참여하는 일본 재계 인사로는 아िका와 겐타로 미쓰비시중공업 회장과 나카조 다카노리 아사히맥주 전 회장 등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일 경제인들은 더없이 악화된 최근의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외교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해 줄 것을 양국 정부와 국민에 주문했다.

제37회 한·일, 일·한경제인회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튿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민도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호소하고 경제인들도 이를 위한 역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 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韓・日 FTA 年内締結必要

- 両国経済人会議 声明書採択 -
- 日企業 新歴集 支援間接時事 -

ソウル新聞4月16日(土)

瀬戸雄三 韓日経済協会会長(アサヒビール相談役)は15日“アサヒビール等の日本企業等は ‘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新歴会)’決して支援していない”と述べながら“事実無根の歪曲された情報が流通されている”と主張した。

彼はしかし“(新歴会に)支援をしたならばそれは企業次元ではなく個人次元である”と明らかにし間接的に関連があることを示唆した。

新歴集は日本歪曲歴史教科書の‘胴体’で 扶桑社出版の歪曲教科書採択に先立つ団体である。特に韓国など周辺国の教科書歪曲反発に内政干渉であると張り合いながら、日本文部省を側面支援する団体でもある。新歴会に参加する日本財界人には AIKAWA-KENNTARO 三菱重工業会長と NAKAZO-TAKANORI アサヒビール前会長など 多数が含まれていると知られている。

一方韓日経済人等は またとなく悪化された 最近の両国関係にも関わらず 韓日FTA(自由貿易協定)の 年内締結に対する必要性を強調し、政治・外交的葛藤については 未来志向的な観点から冷静に対処してくれることを両国政府と国民に求めた。

第37回韓日経済人会議はこの日ソウル新羅ホテルでこのような内容を含んでいる共同声明を採択し、二日間の会議日程を終えた。

両国経済人等は声明で “最近浮上している両国間の政治的・外交的な葛藤が友好的な韓日関係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事と懸念する。両国政府が未来志向の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ことを望む”と言明した。さらに“両国国民も経済・文化など 非政治的な面で両国関係が持続的に発展できるよう全力を傾けていくこと”を訴え、経済人等もそのための役割を果たしていくことを誓った。

韓日FTA推進に関連、“韓日FTAは両国が21世紀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目指す関係に変化していることを象徴する第一歩である”と述べながらこれを通じて調和し、かつバランスの取れた分業構造を構築することにより、東アジアの共存共栄の好循環を作り上げて行くべきである”と認識を共にした。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은 15일 독도 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빚어진 양국 간 외교적 마찰과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효성그룹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세토 유조·아사히맥주 상담역)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4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폐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서에서

“韓日 정부 외교갈등 냉정 대처를”

양국경제인회의의 폐막
공동성명서 채택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인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토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재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토 회장은 특히 일본 경제인들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 “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이 모임을 지원하는 사례는 결코 없다”며 “일부 경제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며 양국 정부에 연내 FTA 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석래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FTA를 조속히 체결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韓日政府、外交葛藤に冷静な対処を

- 両国経済人会議 閉幕 共同声明書 採択 -

韓国日報 4月16日(土)

韓国と日本の経済人たちは15日、独島領有権と歴史教科書の問題などで惹き起こした両国間外交的摩擦に関して共同声明を発表して未来志向的な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ことを両国の政府に促した。

韓日経済協会(会長 趙 錫來 暁星グループ会長)と日韓経済協会(瀬戸 雄三 アサヒビール相談役)は15日、ソウル新羅(シルラ)ホテルで14日から二日間開催された第37回韓日・日韓経済人会議を閉幕しながらこのような内容の共同声明書を採択した。

両国の経済人たちは声明書で「最近、浮上した両国間の政治・外交的な葛藤が友好的な韓日関係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ものと憂慮される」と述べ、「両国政府は未来志向的な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ことを要望する」と述べた。

これに関連して、瀬戸会長は記者歓談会で「両国が政治的に良い関係を維持できるよう財界が先頭に立つ」と述べた。瀬戸会長は特に日本経済人たちの「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に対する支援疑惑と関連、「会社またはグループでこの会を支援する事例は決してない」と述べ、「一部、経済人たちが個人的に支援をしているだけ」と述べた。

両国経済人たちは韓日自由貿易協定(FTA)推進に関して、「韓日FTAは、両国が21世紀の戦略的なパートナーシップ志向関係に変わってきていることを象徴する第一歩だ」と述べ、両国政府に年内FTA妥結を強く促した。

趙 錫來会長は「今回の会議で両国がFTAを早速に締結し、東アジア経済共同体を主導することに合議した」と説明した。

“한일 FTA 체결 노력”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채택

제37회 한일·일본 경제인회의가 15일 공동성명을 채택.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와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막돼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나아가 양국 국민도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경제인들의 각별한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는 공동인식을 명기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다. 성명은 또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체결이 요구되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기대 표명도 담았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성공사례를 전범삼아 산업 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문화 교류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율리 관광·레저 개발과 정부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한국인의 일본 단기체재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철강과 시멘트 등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yh@fnnews.com | 유인호기자

韓日FTA締結努力

－ 両国経済人会議 共同声明書 採択 －

The Financial News 4月16日(土)

第37回、韓日・日韓経済人会議が15日、共同声明を採択、二日間の日程を終えて閉幕した。

今回の会議は日本の独島領有権の無理押しと歴史教科書の歪曲で韓日関係が悪化された状況で両国経済界人士が大挙参加した中、開幕されたことで関心を集めた。

会議に参加した両国の経済人たちは共同声明で「最近、浮上した両国間政治・外交的葛藤が友好的な韓日関係に否定的影響を及ぼすものと憂慮される」と述べ、「両国政府は未来志向的な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ことを要望する」と述べた。

声明は「さらに両国国民も経済、文化など非政治的な面での持続的な発展のため全力を傾けていくこと。」を訴え、そのための経済人たちの格別な役割を促した。

特に韓日自由貿易協定(FTA)推進に関して「韓日FTAは両国が21世紀の戦略的なパートナーシップ志向関係に変わってきていることを象徴する第一歩だ」と言う共同認識を明記し、FTA締結をするための経済界の努力を強調した。声明はまた、「両国の経済活動を円滑にし、両国の構造改革を促進する、包括的でハイレベルなFTA締結が求められ、FTA締結を通じて調和しかつバランスある分業構造を構築する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の共存・共栄の好循環を作り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それと共に声明は、日本が農水産物分野の自由化水準を世界第2の経済大国に見合うようにすべきであるとの韓国側の期待表明も含まれた。

両国経済人たちは引き続き、鉄鋼など素材産業の成功事例を生かして産業各部門の協力を強化し、部品・素材産業の標準化を主導する一方、規制緩和と文化交流にも努力するとの立場を明かした。

そして、観光・レジャー開発と政府サービス交流促進のため韓国人の日本短期滞在ビザ免除など、人的交流条件緩和するための努力も強調した。

これに先立ち、両国経済人たちはこの日、分科会議と全体会議などを行い、鉄鋼とセメント等各産業間の両国協力事例を分析し、今後の協力強化方案などを論議した。



韓日 경제협력은 강화돼야

유인호 산업부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한·일·일·한 경제인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경제를 통해 양국이 협력 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다.

양국 경제인들은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경제 문제로 확대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냉정한 대처를 주장했다.

사실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로 확산될 경우 그 여파는 충격적이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하나 여전히 일본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40년간 한·일 교역규모는 1965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680억달러로 30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이유로 양국 정상은 정치·외교적으로든 내립각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만

큰 협력 관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통상교섭본부 전비호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최근의 한·일 냉각관계를 잠깐 거론한 뒤 대부분의 축사를 경제협력에 할애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야마모토 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한·일 우정의 해를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치권이나 재계 할 것 없이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양국간 경제 관계 재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먼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기업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간 엄청난 실타래를 풀 것을 기대해 본다.

yih@fnnews.com

韓日経済協力は強化されるべき

The Financial News 4月16日(土)

韓国と日本の経済人たちが両国の経済協力方案を論議した「韓日-日韓経済人会議」の幕が下りた。

今回の会議は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と歴史教科書の歪曲で反日感情がピークに達した状況で両国経済界人士たちが大勢参加、いつもよりも関心を集めた。

今回会議で両国経済人たちは経済を通じて両国が協力関係を再び構築できるとの希望をくれた。

両国経済人たちは政治・外交的な葛藤が経済問題に拡大される場合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し、未来志向的な視覚で冷静な対処を主張した。

事実上、韓日関係悪化が経済に拡散される場合、その影響は衝撃的である。中国が我々の最大交易国と浮上したが、今も日本は我々経済に占める比重は高い。今まで40年間、韓日交易規模は1965年2億ドルから昨年680億ドルと300倍以上伸びた。

このような理由で両国頂上は政治・外交的では対立角を立てているが、経済分野だけでは協力関係の構築及び活性化を主張している。

盧武鉉大統領はこの日、通商交渉本部全飛虎亜太通商審議官が代読した祝賀メッセージで最近の韓日冷却関係を暫時取り上げた後、大部分の祝辞を経済協力に割愛した。盧大統領は経済分野の交流と協力が韓日関係の堅固な基盤になるべきだと強調した。

小泉 純一郎 日本総理も 山本榮二 駐韓日本大使館経済公使が代読した祝賀メッセージで「韓日友情の年を両国経済界の協力を得ながら成功的に導こうとする」と強調した。

このように政治権も財界も日本との経済協力関係の重要性を認識、両国間の経済関係再正立に努力している。このためには何よりも今後、両国間の経済協力の課題として先ず韓日自由貿易協定(FTA)の早期妥結のための努力が必要である。韓日企業たちが経済協力を通じて両国間こんがらかった糸を解くことを期待する。

“韓·日 FTA 연내 체결을”

양국 경제인회의 성명 외교갈등 냉정대처 주문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 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 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의 연내 체결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인들이 모여 뜻깊은 회의를 개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토 유조 일본 측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솔직하고 열의에 찬 의견교환이 오가는 등 양국 간 흥금을 털어 놓는 자리였다”고 자평했다.

민진기 기자 jkmin@segye.com

“韓日FTAの年内締結を”

両国経済人会議声明
外交葛藤の冷静対処を注文

世界日報 4月16日(土)

第37回韓日経済人会議が15日ソウル新羅ホテルで、共同声明を採択した後、二日間の日程を終へ閉幕した。韓日両国間の政治、外交的葛藤が深まるなか、両国の経済人たちは自由貿易協定(FTA)の締結と投資拡大などを通して経済協力を一層強化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に認識を共にした。

両国の経済人たちは共同声明で“最近浮上した両国間の政治、外交的葛藤が友好的韓日関係に否定的影響を及ぼすものと憂慮される”とし“両国政府は未来志向的観点から冷静に対処することを要望する”と述べた。

声明はまた“両国の経済活動を円滑にし、それぞれ構造改革を促進する包括的でハイレベルなFTAの年内締結が強く要求される”とし“FTAの締結を通じ、調和しかつバランスある分業構造を構築する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の共存・共栄の好循環を作り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趙錫来(チョウソクレ)韓日経済協会会長は閉幕直後の記者会見で“厳しい時期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日経済人たちが集まって意味深い会議を開催したことを榮光に思う”と述べ、“韓国と日本が経済協力を通してアジアの経済共同体の主導権を握られるようにすべき”と述べた。瀬戸 雄三日本側会長は“厳しい環境で会議を開催することに対し憂慮する視線もあったが、率直で熱意の満ちる意見交換ができるなど両国間の胸襟を開いて語り合う場であった”と自評した。

“韓·日 FTA 연내체결 독도문제 등 냉정대처”

한일경제인회의 성명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 최근 한·일간 이슈에 대해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14~15일 이틀간 서울 잠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유우방이며 양국 정부는 최근의 정치·외교적 갈등에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폐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산업무역회의 개최, 일본 방문 수출촉진단 파견 협력,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한·일 고교생 교류 확대, 중소기업간 상호보완 사업 협력 등에 합의했다.

아사히맥주 상임역인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소사를 지원하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 일본 경제인들의 참여 논란과 관련, “그런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불과하지 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응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토 회장은 “아사히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새 역모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설이 유포됐으나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포스코 박태준 명예회장과 공로영 전 외무부 장관이 최근의 대일관계와 관련 상반된 입장을 표명,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박 전 회장은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잘 하고 있으며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리는 최근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며 거듭 이해를 표시했다.

이에 반해 공 전 장관은 15일 전체회의 연사로 나서서 정부의 강경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 전 장관은 “한·일 양국은 자유우방이자 사실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이웃인데 최근의 대응은 이러한 자산을 실속없이 내팽개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기자 shjung@kmitb.co.kr

韓日FTA年内締結、独島問題など冷静に対処

－ 韓日経済人会議声明 －

国民日報 4月16日(土)

韓日両国の経済人たちは、独島と教科書問題など最近韓日間のイシューに対して両国政府と国民の冷静な対処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に認識を共にした。

14～15日、二日間ソウル中区獎忠洞(チュング・チャンチュンドン)の新羅(シルラ)ホテルで開かれた第37回韓日経済人会議は「両国は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価値観を共有する自由友邦であり、両国政府は最近の政治・外交的葛藤に冷静な対処すべきである」と言う内容の閉幕共同声明を発表した。

両国経済人たちはこの日、韓日自由貿易協定(FTA)年内妥結、産業貿易会議開催、日本訪問輸出促進団派遣協力、両国産業技術協力財団事業、韓日高校生交流拡大、中小企業間相互補完事業協力などに合意した。

アサヒビール相談役の瀬戸 雄三 日韓経済協会会長は閉幕後、記者会見で日本の扶桑社を支援する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新歴会)の日本経済人たちの参与論難に関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あるとしたら個人的に支持することに過ぎなく、会社又はグループ次元での支援もしくは応援することは無い」と述べた。

瀬戸会長は「アサヒビールの場合、中国で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に資金を支援したとの説が流布されたが、絶対そのようなことはしていない」とはっきりさせた。

一方、今回の韓日経済人会議では代表的な知日派人士であるPOSCOの朴泰俊名誉会長と孔魯明 前外務部長官が最近の対日関係に関してお互い違う意見を表明、関心を集めた。

朴前会長は14日、政府の日本に対する対応に関する記者たちの質問に「良くやっているし、よくやるでしょう」と述べた。朴元総理は最近政府の対応が行過ぎるぐらい強硬ではないかとの指摘に対して「そうするしか別の方法は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と再び理解を示した。

それとは反対に孔前長官は15日、全体会議の講演者として政府の強硬対応を強く批判した。孔前長官は「韓日両国は自由友邦であり、事実上同盟関係を維持してきた隣同士であり、最近の対応はこのような資産を実利なく捨て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自問すべきである」と述べた。

韓-EFTA FTA 7월 타결 된다

2차 서울협상서 주요쟁점부문 분과별 통합문안작성 마무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4개국으로 이뤄진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우리나라간의 FTA 협상이 오는 7월에 실질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양측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FTA 협상을 갖고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품무역, 통관절차, 원산지,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세부 분과별로 통합문안 작성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EFTA는 공산품과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한국은 폭넓은 시장개방을 하되 원유와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에서 제외하거나 이행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무역과 통관절차, 원산지,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시장 등의 통합문안 작성에 마무리되는 등 상당한 협상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EFTA측은 개성공단 생산업체와 품목 리스트, 통관절차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 달 30일부터 6월2일까지 노르웨이에서 열릴 제3차 협상에서 FTA 협정본 및 상품화한 협상에 대해 대부분 합의할 도출하고 오는 7월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협상에서 한-EFTA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이

끌어낼 방침이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에 참여하지 않은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거의 없어 FTA가 양측간의 무역과 산업 경쟁

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2차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외교부, 재정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18개 부처에서 69명이, EFTA측에서 EFTA 사무국 관계자 등 33명이 참여했다.

박종만 기자/jmpark@s2rupnews.com



韓·日 경제인회의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한일경협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일본측에서는 오무라 히로시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중층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관련기사 2면

韓·日 경제인회의 성료

양국 경제대표 250여명 참석... FTA추진 등 협력방안 논의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한일경협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일본측에서는 오쿠다 히로시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중증적 한일 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15일 본과회의에서는 한일철강 협력 성공사례와 향후협력방향, 소재산업의 한일경제연대 사례의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안인 FTA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

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과 한일해협교류권의 현상과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한일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로명 전외무부장관(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과 테라다 테루스케 전 주한일본대사(포린프레스센터 이사장)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조석래 단장(주식회사 효성 회장)을 비롯,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134명이 일본측에서는 세토유조 단장(일한경제협회 회장) 외 오쿠다 히로시

도요타자동차 회장(경단련 회장), 와타리 쇼이치로 도시바 상단역, 이마이 타카시 신일본제철 명예회장 등 105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양국경제교류 촉진에 큰 공헌을 한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무라 마사야 전일한경제협회에게 공로상이 수여됐으며, 일본측 단장단은 행사 기간동안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부총리, 외교통상부 차관, 산업자원부 차관을 예방하고 양국경제관계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만 기자/jmpark@sanupnews.com

韓·日 경제지도자 모인다 [서울경제신문 2005-04-11 20:34:22]

일본의 교과서 왜곡·독도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11일 한일경제협회는 오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일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중층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 공로명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이 '어떻게 한·일간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밖에 유상부 포스코 고문,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사메시마 후미오 태평양시멘트 사장, 이시하라 스스부 규슈여객철도 사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일 경제인회의 양국정상 축하메시지 '주목' [서울경제신문 2005-04-12 21:14:34]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의 개회식에서 각각 축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또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8명의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행사가 끝난 직후인 15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 일본 정부 또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경제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양국 정상 모두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로 예정돼 있다"며 "일단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열리는 행사인 만큼 격려의 의미가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내용은 당일 개회식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변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일간 경제협력이나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메시지가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경제인들은 15일 행사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양측 경제계 대표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한일간 경색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해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은 이번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이래 일본 국민들에게 확산돼왔던 한국에 대한 최근 감이 최근 한일 관계로 인해 염한(厭韓) 감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해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한일 경제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韓·日 경제인 25명 서울서 모인다 [국민일보 : 2005.04.12, 18:43]

독도 영유권 및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일경제협회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를 맡았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한다.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공노명 전 외무부장관), '중층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에 대한 강연 또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경선기자 bokkyung@kmib.co.kr

한일 경제인 250명, 13일 기업협력 논의 [동아일보 2005-04-12 18:09:00]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의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경제협회는 14일과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 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과 박태준(朴泰俊)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金相廈) 삼양사 회장, 나웅찬(羅應燦) 신한금융지주 회장, 현명관(玄明官)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尹鍾龍)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또 일본에서는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20여 명이 참가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한·일 경제인 한자리 모인다 [경향신문 2005-04-12 17:43:29]

독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경제인 회의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 조희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와타리 스가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떻게 한·일간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공노명 전 외무부장관), '중층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양국 정상외 메시지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측 대표단은 행사를 마친 뒤 이해찬 총리를 예방한다. 양측은 15일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최근 검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고 경제계가 양국간 긴장해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분규기자>

韓-日 갈등 경제인이 풀자"【파이낸셜2005. 04. 12, pm 5:35】(KST)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일경제협회는 14~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인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나용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하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와타리 스가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한다.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떻게 한·일간의 부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공노명 전 외무부장관), '중층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에 대한 강연과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양측은 15일에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최근 검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KOTRA는 오는 15일 일본 부품소재 핵심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갖는다. 이날 상담회에는 우리측에서는 내성하이텍주 등 100개사 150명이, 일본측에서는 시스템코포레이션 등 39개사 55명이 참석한다/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한·일 경제인 대거 참석 회의 열려(종합) [연합뉴스 2005-04-12 15:38:32]

독도 영유권 및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오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 조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간상하 삼양사 회장, 나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하며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나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한다.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공노명 전 외무부장관), '중층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에 대한 강연 또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축하메시지를 대독 형태로 각각 전하는 식순이 있어 양국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측 대표단이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일정도 있다.

양측은 15일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는 등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 협력 활성화가 주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색된 양국 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une@yonhapnews.co.kr

韓日 재계 '화해의 다리' 되나 [헤럴드경제 2005-04-12 13:33:47]

14~15일 서울시 한일 경제인회의 FTA 안내체결등 정경분리 공동선언 채택 추진 고이즈미 총리 친서 전달... 관계개선에 가교역 독도 영유권과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안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재계 대표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는 등 정경분리원칙에 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재계 대표들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전하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양국 관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분리에 근거한 경제교류=오는 14, 15일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올해로 37년째다. 이번 행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갈등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독도문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다시 폭발하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과격한 시위에 대한 거부감으로 경제 및 민간 교류마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연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했던 한·일 FTA 협상은 일본 측의 농업보호정책으로 교착상태에 빠

졌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번 회의에서 FTA 협상의 조기 타결과 정경분리원칙에 근거한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전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전 회장, 아키야마 도미이치 스미토모상사 전 회장 등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인 오쿠다 히로시 도요타 회장 등 120여명이 넘는 일본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극우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한국에선 조석래(효성그룹 회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박태준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도 내빈으로 참석한다. 그 동안 경제문제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긴장된 양국 관계를 감안해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행사기간에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거쳐 양국 정부와 경제계를 향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

전체 회의에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한·일 관계는 독도문제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총리 친서 전달하나=이번 일본 경제계 인사들의 방문 중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이해찬 국무총리,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과의 만남이다. 세토 유조 회장 등 일본 대표단 8명은 행사 시작 하루 전인 13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차관을 예방하고 15일에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배석하에 유럽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이 총리를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일본 대표단은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나 메시지를 이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예상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경제인회의 관계자는 "일본 측이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한·일 경제교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일지는 만나봐야 알겠지만 최근 한·일 간 갈등 때문에 경제교류가 중단돼서는 안 되며 일본 측이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양국의 FTA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상현·김만용 기자(mykim@heraldm.com)

한·일경제인, 한자리 모여 협력논의 [edaily 2005-04-12 08:47:01]

한·일관계가 독도 영유권과 교과서 왜곡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대거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회장)는 오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인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양측의 경제현황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관계의 발전과 긴밀화를 목표로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우리측에서는 조 회장을 비롯해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

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사메시마 후미오 태평양시멘트 사장, 이시하라 스스부 큐슈여객철도 사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일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에 대해,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중증직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에 대해 각각 기조강연할 계획이다.

또 공노병 전 외무부장관이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태라다 테루스케 포린프레스센터 이사장이 ‘한일관계의 현상과 전망’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오는 15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

이태식 차관, “일본 망언에 좌절감”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오늘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일 경제인 회의를 위해 방한한 일본 재계 원로 8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잇단 망언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측 인사들은 이에 대해 최근 한일간의 정치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와 문화 교류를 잘 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태식 차관 "일본 망언에 좌절감 느낀다.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17층 접견실에서 한일경제인회의차 방한한 일본 재계 원로 8명을 접견하고, "일본내에서 정치인들의 망언이 잇따라 나와 좌절감을 느끼며 한일관계를 지해하고 있다"며 "그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해외출장 중인 반기문(潘基文) 장관을 대신해 접견했다. 일본측 인사들은 "최근 한일간의 정치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한 뒤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경제와 문화 교류를 잘해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일측 대표단의 일부로 독도 영유권 및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 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 차관의 일측 재계원로 접견이 이뤄진 같은 시각에 접견실 맞은 편 상황실에서는 제5차 일본 교과서왜곡 대책반 회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연합]

제3의 한·일 신시대 열리면 [국민일보 2005.04.13, 18:27]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지금 신시대라니. 참으로 생뚱맞다. 신시대는 고사하고 관계 자체가 휘청거리는 판이 아닌가. 일본열도를 때어내 지구 반대편으로 내보낼 수도, 그렇다고 한반도를 뚫어지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할 말은 하면서라도 양국의 공존 가능성 찾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초 양국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시민단체에 이르

기까지 한·일 공동 기념사업이 추진됐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행사는 미뤄지거나 아예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제37차 한일경제인회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는 탓에 양국 재계 대표들이 주도하는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제계를 비롯해 정경 분리원칙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 전망도 나온다. 지난 40년간 한·일 경제관계는 예상 이상의 성과를 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의 3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이며, 일본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최대의 수입국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현상 분석만 있었을 뿐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는 무역역조, 일본의 기술이전 및 대한 투자 부진 등 한·일간 경제격차에 따른 불만 섞인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일본의 경우는 60~70년대에는 주로 시혜적인 입장이 강조되다가 80년대 들어와서는 엉뚱하게도 한국경제 경제론이 나올 정도로 양국 관계에 대한 비전 찾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지금은 폐간됐지만 진보성향의 '경제평론(일본평론사)' 85년 6월호의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 특집' 내용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시의 '경제평론' 특집호에서 그나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양국 관계가 지난 20년 동안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했다는 지적, 앞으로 한국은 21세기에 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다.

흔히 양국 관계에서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 중간재 등을 발판삼아 수출입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이 일방적으로 강조돼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도 적지 않게 혜택을 받았다. 일본의 해외투자가 처음으로 결실을 본 것은 한국이었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중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기업진출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말하자면 한국은 일본의 해외투자모델 노릇을 한 셈이다.

양국 관계는 그만큼 상호 의존적으로 전개돼 왔으나 미래를 향한 비전은 마련하지 못했다. 비전은 경제부문이 아니라 정치쪽에서 모색됐다. 양국의 국교정상화 자체가 정치적인 매듭이었으나 80년대 들어 한국의 신군부는 만성적인 대일 역조를 빌미로 일본에 기술이전과 6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은 83년 1월 40억달러 제공으로 화답했다. 이로써 제1차 한·일 신시대가 열렸다. 그 배후에는 '론-야스의 밀월'로 상징되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총리간의 강한 연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유대 강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1차 한·일 신시대는 87년 나카소네의 총리 퇴임과 신군부의 정권교체 등으로 이렇다할 성과없이 마감됐다.

제 2차 한·일 신시대는 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에 조인함으로써 열렸다. 이른바 '한·일 신선언'을 통해 양국은 비로소 서로를 미래의 동반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것도 이 신선언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한·일 신선언은 지금 사실상 파기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제3의 한·일 신시대를 의미한다. 그 단초가 무엇일지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일본의 정치적 우향상을 감안하면 1차, 2차 신시대와 같은 정치적 계기로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국 남는 것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다.

이미 양국은 국제질서속에서 경제적 유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확인하고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상생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제3의 한·일 신시대, 길은 열려 있다. 양국의 민간, 특히 재계의 역할을 기대한다. choyr@kmib.co.kr

14일부터 한·일 경제인회의 [중앙일보 2005-04-13 10:12:27]

한·일경제협회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37회 경제인 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등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등이 참가한다.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박태준·유상부 전임 포스코회장들 韓日 갈등해결책 모색 '의기투합'
[경북일보 아한용기자 2005/04/15]

박태준-유상부 전 포스코회장들이 의기투합해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해소 전면에 나선다. 갈수록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박태준 포스코명예회장과 유상부포스코고문이 함께 주빈으로 참가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경제계에서는 일본과 직·간접 루트를 지니고 있는 두 포스코회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경제협회는 14일과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제37회 한·일·일본 경제인회의를 개최, 두 나라의 갈등을 경제측면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하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박태준명예회장은 일본 와세다대학을 수료했을 뿐 아니라 일본 정치계거물과 친분 관계가 돈독하고 한일의원연맹 한국측회장을 지냈고 유상부고문도 지난 96년부터 2년동안 삼성그룹의 일본출자사인 삼성재팬의 사장직을 맡는 등 일본통으로 재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한일 경제인 '이럴때 일수록 협력' [YTN 2005-04-14 20:02:00] [앵커멘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은 현재 한·일관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경제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의 시작전 모인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의 모습은 화기애애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회의장에서는 최근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녹취: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작금의 양국관계는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사사실의 인식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에 의해 반드시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양측의 경제인들은 이럴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두 나라간의 경제협력 특히 FTA 체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조식래, 한일경제협회 단장] "교착상태에 빠지있는 정부간 협상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인들이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7번째인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식래 효성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 경제인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경단련 회장 등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최근 경색된 양국관계가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번 회의를 마치면 양국 경제인들은 최근 한일간의 현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전호입니다.

한일경제인회의 개막...15일 공동성명 발표



<SBSS뉴스>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4일 개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올해 안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2005-04-14 19:50:28

한일경제인회의 개막...15일 공동성명 발표

<SBS 8뉴스>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4일 개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올해 안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국 경제협력 강화 FTA 조속타결 기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더없이 악화된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일경제협회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해'를 주제로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갖고 있다.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의 한·일 관계는 '한·일 우정의 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번 갈등은 새롭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신뢰관계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장도 “최근의 양국 관계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과장으로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경제인들이 앞장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에서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먼저 FTA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를 확립하고 동아시아권내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권 전체의 시장과 능력,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양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렌 회장은 ‘중층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현'이라고 본다.”며 한·중·일 3국의 경제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양측은 15일 분과 및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일본 경제인들이 15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는 만큼 양국 관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에서는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단역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FTA는 장차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연내 FTA 관련 실질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가 민간차원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기운을 고양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golders@seoul.co.kr](mailto:golders@seoul.co.kr)

[사진]37회 한일 경제인회의 [머니투데이 2005-04-14 19:24:46]

(첫번째)1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두번째)이날 행사에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회장과 경제5단체 임원등 한국 경제인 130여 명이 참석, 일본에서는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경단련 회장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세번째)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오른쪽)과 일본측 세토 유조 단장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네번째)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맨 아래)일본측 세토 유조 단장이 인사말에 앞서 한국 내빈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문호기자 pmoa@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韓·日 FTA 조기타결, 中포함 3국분업 공감 2005. 04. 14. pm 6:43 (KST)

독도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 경제인들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을 꼽았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주최로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한일 우정의 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운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번 한일간의 갈등은 새롭고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데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신뢰관계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간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FTA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렌 회장은 '중층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현'이라고 본다"며 한중일 3국의 경제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상담원은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양측은 15일에는 분과 및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최근 검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한일FTA 체결을 촉구하는 등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 협력 활성화가 주내용이 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검색된 양국 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역사인식차 불구 韓日경협 강화를" [한국일보 2005-04-14 18:34:42]

독도 영유권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틀간 일정으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조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너무 감성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면이 있다"며 "참다운 성과를 이루려면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밝히면서 흠음을 털어 놓고 실속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도 "최근 양국 관계가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양호한 상황이 아니다"며 "그러나 양국간 협력의 싹을 자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우호적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렌 회장도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양국 경제인들은 정부, 학계와 협력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각국의 국내 문제 조율에 힘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보내 "양국이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도 축사를 보내 "경제계의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인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용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병관 삼성물산 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오쿠다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양국 경제인 대표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일 무역역조 반드시 개선"...한덕수 부총리 2005. 04. 14. pm 8:20(KST)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부총리는 또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색을 의식한 듯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이 성숙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경제인 회의'의 축사에서 "지난해 사상 최초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간접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를 전망할 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양국간 교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무역 역조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산업구조와 기술수준 차이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런 추세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부총리는 이에따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기술이전, 투자증가 등 기업간 교류 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양국관계의 급속한 경색을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은 국교정상화 40년을 맞아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성숙한 자세로 인한다면 양국간 협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부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9일 다니카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활성화와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혀 일본측의 성의있는 FTA 협상 자세와 부품소재 대일 무역 역조 해소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일깨우기도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한·일정상 “FTA체결 기대” [경향신문 2005-04-14 18:11:28]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한·일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전비호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장차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그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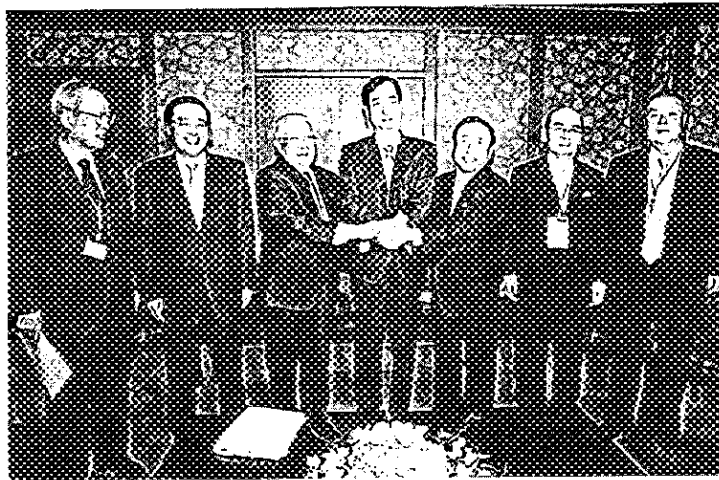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이날 야마모토 에이지(山本榮二)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현재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명실공히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게 돼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양국 정부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의 폭넓은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규기자>

손 맞잡은 한-일 경제인 파이낸셜뉴스2005. 04. 14. pm 6:11 (KST)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 세번째) 및 세토 유조 일본측 회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기자



"韓·日 경제협력은 강화돼야" [서울경제신문 2005-04-14 18:06:47]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최근의 독도 문제와 교과서 역사왜곡에 따른 한일 양국의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강화돼야 한다”고 한복소리를 내 주목된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경제대국으로서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며 “현안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을 서둘러 동북아 지역협력의 불씨를 트자”고 제안, 정치와 경제를 분리 처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고이즈미 총리 역시 야마모토 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양국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측 단장인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은 경제인회의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한일간 갈등은 새롭고 성숙한 관계로 거듭나는 데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신뢰관계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토 유조 일본 측 단장도 “최근의 양국관계는 역사의식 파생에 따른 문제로 양호하지 않은 것은 우려할 만하지만 양국은 동아시아 선진 2개국으로서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에서 한일간 향후 경제협력과제로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 간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렌 회장은 ‘중층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대처해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현’이라고 본다”며 한중일 3국의 경제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부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담역은 이 자리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이날 한일경제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 회장과 박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게이단렌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15일 분과 및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 제계 "FTA체결에 힘쓸것"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한일 우정의 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번 한일 간의 갈등이 새롭고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윤종용(尹鍾龍)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과제로 우선적으로 FTA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중·일 3국이 분업구조를 확립하고 동아시아

권 내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권 전체의 위상을 제고하자”고 밝혔다.

오쿠다 히로시(奥田碩) 일본 게이단련(經團連) 회장의 '중추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현"이라며 한·중·일 3국의 경제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조형래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hrcho.chosun.com])

<박태준씨 "정부 한일관계 대응 잘해"> [연합뉴스 2005-04-14 17:56:24]

"자주 만나야", "한일협정 적절"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흥규 기자 = 포스코 명예회장인 박태준(朴泰俊) 전 총리는 14일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관련, "잘 하고 있으며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직 지일(知日)파 인사인 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박 전 총리는 "정부의 대응이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거둬 이해를 표시했다.

박 전 총리는 "민간은 이처럼 잘 하고 있으니 정부가 잘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자주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세대에는 잘 지냈는데 요즘은..."이라며 "(일본 쪽) 젊은 사람들 을 오라고 해서 자주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 그와 분들도 자주 만나야 한다"면서 활발한 교류를 해법으로 제차 내세웠다.

특히 그는 한일협정에 대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협정 자금에 힘입어 '포철 신화'의 주인공이 된 장본인이다.

"한일협정 체결과 그 대가로 받은 일본측 자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전 총리는 "100%가 어더 있느냐"고 반문한 뒤 "포스코야 세계가 인정하는데 이런 거야 잘 된 거고, 그 외에는 또 잘못된 것도 있겠지"라고 답했다.

박 전 총리는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는 뜻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시간을 더 많이 끌었다면 돈을 더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효과라는 게 있는 것이니 견뎌봐야 한다"면서 "결론을 시뮬러 내시 (포항)제철소도 짓고 제1의 조선소도 생기고 요새 자동차도 잘 팔리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일협정과 관련, 한일 양국은 1962년 김종필(金鍾泌)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간의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기초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자관 1억달러'에 최종 합의했고, 당시 유신정권은 이중 무상자금 3억달러의 대부분을 일제 피해보상이 아니라 포철과 고속도로 건설 등에 썼다.

uni@yna.co.kr (끝)연합뉴스

韓日경제교류통해 갈등 풀자...양국 경제인회의 개막

[동아일보 2005-04-14 17:54:00]

제37회 한일·일본 경제인회의가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개회식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각각 축하 메시지를 보내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 전비호(全飛虎) 아태동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위해선 국민적 차원의 교류, 특히 경제 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이 앞장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일본 측 단장인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양국간 상호 보완과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답했다. 김상수 기자 ss00@donga.com

고이즈미 "폭넓은 인적 교류 추진해 나가겠다"

[머니투데이 2005-04-14 17:50:17] 최정호기자]

한일경제인회의에 보낸 축하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과거사의 독도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만을 강조했다.

또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거부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FTA에 대해서도 원론적 언급만 있었다.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축하메세지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젊은이들의 교류를 촉진시키겠다"며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정한 올해 폭 넓은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정부도 양국간 경제 관계 긴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한일투자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사회보장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FTA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 없이 민간 차원에서 경제인회

가 기운을 고양시켜 주기 바란다고만 언급했다. 과거사나 독도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세토 유조 경제협의회 일본측 회장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은 밤이나 주제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시기"라면서도 한일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하지 않았다.

한편 유조 회장은 양국 고교생 교류 캠프에 참여한 한 한국 학생의 소감을 소개하며 한일간 현안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주장했다. 유조 회장이 소개한 소감문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국가 전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류를 통해 편견 없이 개인으로 평가해야 함을 알았다"는 내용이다.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일본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인사 또는 집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유조 회장은 "역사 인식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상호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 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노대통령 "한일 과거사 직시 용기 중요"

노부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일 양국관계가 건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전비호(全飛虎)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적 차원의 교류,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개막..FTA 추진포함 협력방안 논의

독도 영유권 및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인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리포트] "FTA 조기 타결 주력" [한국경제TV 2005-04-14 17:47:22] [앵거]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 대표 250명이 참가하는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의 광범위한 경제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S) 한일 양국간 철강협력과 소재산업의 경제연대, 해협교류권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경제대표들은 최근 불거진 경제외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제적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FTA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기본 합의에 도달해야한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경제인들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INT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교착상태에 빠진 FTA 추진을 위해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조 회장은 또 한일 경제시장통합이 아시아 경제공동체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S) 한편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산업구조와 기술 수준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독도문제로 양국간 첨예한 감정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S) 두 나라 경제대표들은 경제외적 돌발변수를 배제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강화와 FTA 추진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utv.co.kr

노대통령, '과거사 직시 용기 필요' [YTN 2005-04-14 17:47:00]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국민적 차원의 교류,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으로 동북아를 포괄하는 역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서 일본이 그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김응권]

삼성전자 윤 부회장 "한·중·일 분업구조 필요"

2005-04-14 17:35:45

윤중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간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0년간 한일 교역규모는 1965년 2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680억달러로 300배 이상 늘어났고 일본 기업의 대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2004년 244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기피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방향은 장벽을 쌓아 가는 교역의 축소균형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협력과 개방을 통한 교역의 확대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먼저, FTA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차세대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한일 전체를 놓고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분담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컨대 TFT-LCD, PDP 등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및 이동통신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제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과, 이들의 핵심기술과 소재기술에서 절대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호 협력할 경우 세계적인 차세대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중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를 확립하고 동아시아권내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권 전체의 시장과 능력,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일 경제인 협력의 규모를 좀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한중일이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련의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칫 우호적인 한일 경제관계에 악영향이 생기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국의 경제, 민간기업차원에서 보다 우호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증진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CSN**

한일경제인회의, 경험 통해 역사문제 해결노력

[edaily 2005-04-14 17:30:20] [edaily 양효석기자]

한국·일본 경제인들은 독도 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따른 양국간 긴장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간 노력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은 양국간에 가교농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을 검토하는 등 지난 40년동안 양국이 쌓아온 경제발전 토대를 부너뜨려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부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담역이 한일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명예회장은 소감발표를 통해 "무슨 일이든 역경이 있어야 보람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며 "한일 양국 경제인들의 활약이 양국의 경제발전과 우호증진에 좋은 영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리측에서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을 비롯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응찬 신한금융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고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막축사를 했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부다 히로 시 일본정단련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오는 15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최근 검색된 양국관계가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한일 양측은 15일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

한·일 경제인 한자리에 모였다

한·일관계가 독도 영유권과 교과서 왜곡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는 14일에서 15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양측의 경제현황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관계의 발전과 긴밀화를 목표로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이라

는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측에서는 조석래 효성 회장을 비롯해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장,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한·일 경제인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문제 등에 대한 양측 경제인 대표들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현미 기자 painmi@stockdaily.co.kr 스타크데일리 2005-04-14 17:29:58]

대규모 한일 경제인 회의 열려

KBS뉴스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두 나라의 경제계 인사 250 여명이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경제인회의가 오늘 서울 신라 호텔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교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축하 메시지에서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 즉 FTA 에 대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내일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실릴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 고이즈미 "한일 FTA 연내 완료"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오늘 한일 경제인회의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FTA가 연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명실공히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게 돼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TV) 매일경제 2005-04-14 17:10:01

日 게이단렌 회장, "한.중.일 경제연계 강화해야"

[연합뉴스 2005-04-14 17:09:18]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인게이단렌 회장은 14일 한.중.일 3국의 경제연계 강화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쿠다 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서 '중증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현'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적재산권의 실효적 보호와 법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3개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한.중.일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협정을 통해 한.중.일의 '원-원-원' 관계를 보다 탄탄게 만들고 나아가 FTA의 구현으로 연결해 나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선진국으로서 한.일 양국이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를 조기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상을 염두에 두고 양국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한국의 경제인들은 양국의 정부, 학계와 협력해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각국의 국내 문제 조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june@yna.co.kr 연합 뉴스.

삼성전자 윤 부회장 "한.중.일 분업구조 필요"

[연합뉴스 2005-04-14 17:04:42]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간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0년간 한일 교역규모는 1965년 2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680억달러로 300배 이상 늘어났고 일본 기업의 대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2004년 244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기피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방향을 장벽을 쌓아 가는 교역의 축소균형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협력과 개방을 통한 교역의 확대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먼저, FTA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차세대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한일 전체를 놓고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분담을 모색해야 한다"며 "에컨대 TFT-LCD, PDP 등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및 이동통신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제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과, 이들의 핵심기술과 소재기술에서 절대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호 협력할 경우 세계적인 차세대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중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를 확립하고 동아시아권 내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권 전체의 시장과 능력,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일 경제인 협력의 규모를 좀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한중일이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련의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칫 우호적인 한일 경제관계에 악영향이 생기거나 앓을까 우려된다"며 "양국의 경제, 민간기업차원에서 보다 우호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증진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e@yna.co.kr (끝)

한,일 경제인, '서로 이해,배려 필요한 때'

[연합뉴스 2005-04-14 17:02:40]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서 양측의 대표들이 최근의 한,일관계와 관련,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때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국측 단장인 한일경제협회 조석래(효성 회장)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양보와 희생은 감수하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보일 때 두터운 신뢰가 쌓이고 뜻있는 이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우리가 그간 자칫 과거에 사로잡혀 너무 감성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실제 속내를 말하지 않고 상대에게 어려운 말은 피하면서 결단 다투는 이야기를 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밝히면서 흥분을 터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측 단장인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에 참가했던 한 학생의 감상문을 소개하면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하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국가 전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교류캠프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 이같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감상문의 요지다.

세토 회장은 "고등학생이 쓴 감상문에서 많은 사실을 배워야 한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e@yna.co.kr (끝)<저작권자(c)연합뉴스.

조석래 회장 "韓日, 과거 사로잡혀 감성적 접근"

[edaily 2005-04-14 16:53:11] [edaily 양효석기자]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은 14일 "작금의 한일관계는 한일 우정의 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가 그간 자칫 과거에 사로잡혀 너무 감성적으로 문제는 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에 임각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양보와 회생을 감수하고 상호 배려할 때 신뢰가 쌓인다"면서 "한일관계는 성숙단계로 가는데 길목인 만큼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기 위해선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먼저 모범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시장통합함으로써 아시아 통합의 초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올해안에 FTA 체결을 목표하고 있지만 정부간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해 연내 체결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면서 "정부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인들이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을 국가전체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일 교교생간 교류사업 참가생의 소감문을 소개하면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토 회장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은 말이나 주제의 단계는 이미 졸업했다"며 "이제는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고, 특히 경제분야 교류를 양국관계의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때이지만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생각하면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

盧대통령 "韓日간 과거역사 측시가 중요"

[edaily 2005-04-14 16:36:32]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한일 양국간 건진하고 옳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과거역사를 측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이 이에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진기호 외교통상부 차관 겸 아태총상심의관의 대독으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한일 양국은 국민적 차원에서도 친근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양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미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에 협력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일본 농수산물 분야 자유화 수준이 큰 관심"이라며 "이는 양국 정상간 확인한 바 있는 `포괄적 자유화` 수준에서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야마모토 에이치 주한일본대사관 공사의 대독을 통해 "일본 정부도 양국의 경제관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일 FTA, 상호지원협정, 상호보장협정 등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현재 협상중인 FTA가 체결되면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이뤄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연내 실질적으로 합의되도록 민간차원에서도 고양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

日총리 "한일FTA 연내 실질합의 희망"

[연합뉴스 2005-04-14 16:35:50]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는 14일 "현재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한일 경제 연계협정(자유무역협정:FTA 의미)이 체결되면 명실공히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게 돼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서 야마모토 에이치(山本榮二)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께서도 확인하셨던 목표대로 연내로 실질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가 민간차원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기운을 고양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양국 정부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의 폭넓은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히 양국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를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uni@yna.co.kr 연합뉴스

한 부총리 '한·일 교역 불균형 우려' [YTN 2005-04-14 16:29:00]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일 간 교역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교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와 기술이전, 투자증가 등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 Digital YTN 황선욱

노대통령 "한일 과거사 직시 용기 중요"

[연합뉴스 2005-04-14 16:10:24] 서울=연합뉴스) 고희규기자

"과거사 부담 해법위한 협력 강화 희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일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전비호(全戔虎)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와함께 국민적 차원의 교류,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올해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양국 경제계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쟁점 중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대원칙 하에 양측이 노력해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일 FTA는 장차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번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가 양국간 협력을 더욱 폭넓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uni@yna.co.kr 연합뉴스.

한.일 경제인회의 개막..FTA 추진포함 협력방안 논의

[연합뉴스 2005-04-14 15:55:10]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독도 영유권 및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37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 조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한일 우정의 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번 한일간의 갈등은 새롭고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데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신뢰관계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간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 먼저, FTA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를 확립하고 동아시아권내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권 전체의 시장과 능력,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렌 회장은 `중증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현'이라고 본다"며 한중일 3국의 경제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한국의 경제인들은 양국의 정부, 학계와 협력해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각국의 국내 문제 조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부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담역은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양측은 15일에는 분과 및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최근 검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는 등 경제분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 활성화가 주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검색된 양국 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일정도 있다.

june@yonhapnews.co.kr 연합뉴스

한 부총리 “한-日 교역 불균형 우려” KBS뉴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한·일간 교역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교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산업구조와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양국간 교역 불균형이 발생하는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추세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한덕수 부총리, 한일경제인회의 축사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일 양국의 경제인과 내빈 여러분.오늘 이처럼 저명한 양국의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양국 기업인간의 가장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한일 경제인협회, 일한경제인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 양국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양국 정부는 올해를 '한일우정의해'로 지정하고 한 차원 높은 교류협력관계 설정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한일FT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리는 올해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 연간 2억불에 불과하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해에는 300배 이상 증가한 670억불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수입1위 수출3위)이며 2대 투자국입니다. 한국 역시 일본의 3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눈부신 발전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사상최초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무역 역조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기술이전 및 투자증가 등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분과회의 주제로 '한일 기업간 경제연대와 협력방안'을 채택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moreover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양국 산업 협력에 대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40년전 일년에 만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왕래가 이제는 하루 1만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전에 없이 높아졌습니다. 양국은 이제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이 그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하여 성숙한 자세로 임한다면 양국간 협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일례로 지난 4월 9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과 본인은 한일FTA 협상의 활성화와 부품소재분야 협력강화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양국간 경제교류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차원 높은 양국관계를 위하여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37회 한일경제인 회의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양국 경제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선환 기자 shkim@stockdaily.co.kr Copyright©스탁데일리
스탁데일리 2005-04-14 15:37:51]

韓부총리, "한·일 양국 경제협력 확대 필요"

한덕수 부총리는 14일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기술이전과 투자증가 등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참가,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부총리는 "지난해 사상최초로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무역불균형 심화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부총리는 "올해 한·일 양국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는 해이며 '한·일 우정의해'라며 한 차원 높은 교류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계기로 삼고있다"며 "한·일FTA가 추진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 연 2억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지난해에는 300배 이상 증가한 670억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수입1위 수출3위)이며 2대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한국도 일본의 3대 교역 파트너이다.

이와관련 한부총리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눈부신 발전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하며 "이번 회의가 한자원 높은 양국관계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산환 기자 shkim@stockdaily.co.kr

Copyrightⓒ스타데일리 2005-04-14 15:32:48

한 부총리 "韓-日 교역 불균형 우려"

[연합뉴스 2005-04-14 15:30:16]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한일간 교역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경제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인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교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산업구조와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양국간 교역 불균형이 발생하는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추세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와 기술이전, 투자증가 등 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설정을 위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그동안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성숙한 자세로 임한다면 한일간 협력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bok@yna.co.kr 연 합 뉴 스

韓부총리 "대일 무역적자 바람직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2005-04-14 15:30:10] [머니투데이 시명훈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 축사를 통해 "지난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불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기술이전 및 투자증가 등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부총리는 "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연간 2억불에 불과하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해에는 670억불을 기록했다"며 "일본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 역시 일본의

3대 교역 파트너"라며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69년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양국간 무역과 기술협력, 경제협력 등을 위한 매년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는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교류 증진을 위한 유대강화와 친선도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명훈기자 mhsuh@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한일 경제인 회의 열려 [YTN 2005-04-14 15:17:00] [앵커멘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인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한일경제인 회의인데요,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진호기자! 회의가 시작됐습니까?

[중계리포트]

조금전부터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정례 회의지만 최근의 경색된 한일관계 때문에 이번 회의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 간의 협력방안입니다.

오늘 개회식에는 양국 정상들도 축하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법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축하메시지에서 올해 안에 한일간의 경제연계협정이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협정체결을 위한 기운을 고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 경제인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쿠다 히로시 일본 정단련 회장 등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오쿠다 히로시 일본 정단련 회장의 기조연설이 있고 내일 분과회의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행사를 마친 뒤에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양측 경제계 대표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한일간 경제관계를 윈만하게 해소해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호텔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김진호]

日 잇단 유화제스처..우리 정부 '냉담'

韓 '실천강조' 日 '말로만'..과거사해법 '온도차'

독도와 왜곡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로 우리나라의 정면반발에 부닥친 일본 정부가 최근 잇따라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냉담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고바야시 유타카일본 자민당 참의원은 지난 8일 열린우리당 문희상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일본총리가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고이즈미 준이치로총리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바야시 의원은 또 "모리 전 총리는 자파 소속 의원 및 각료들에게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한나라당 권철현위원을 만나 모리 전 총리가 지난 7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한국을 자극한 인사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까지 했습니다.

비록 고이즈미 총리 등 책임있는 일본 당국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아니지만 화해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 것 만큼 틀림없어 보입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도 어제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국회특위'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1945년까지 한국인에게 대단한 아픔을 드린데 반성한다"며 "양국 정상회담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성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정.관계가 동시에 '화해의 손짓'으로 우리 정부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14~15일 서울에서는 양국의 내로라 하는 재계의 거물들이 대기 참석하는 한일.일한 경제인회의가 열려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우리 정부가 양국간 감정의 골이 깊이진 상황에서도 경제.문화교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외교를 내세우긴 했지만 검색된 양국 관계문제를 극복을 촉구하는 내용도 이 회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이 일본발 화해 메시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일기조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각료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며 고이즈미 총리의 '망언각료 문책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반 장관은 그러면서 "왜곡 역사를 청소년에게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있는대로 바르게 기

술하는 시정조치는 물론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일본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망언'각료 문책이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근시안적 대책으로 일본의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에 따른 실천이라는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일본의 잇단 유화제스처가 한일 갈등이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중 갈등으로 이어져 일본이 동북아의 미아신세가 될 처지에 놓인데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거의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 등 일본정부의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시급성에 따른 이른바 '속임수 동작'이 아니냐는 인식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천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이를 방관한채 말로만 때우려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해법에 대한 온도차로 인해 양국간 접점찾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2005.04.14 13:4

14일 한·일 경제인 모임

[문화일보 2005-04-14 12:22:03] (::노대통령-고이즈미 메시지 발표 주목::)

정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제인들이 14일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이 자리에선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각각 축하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일경제협회는 14일과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연대와향후 양국 기업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양국 정상이 모두 축하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면서 "주요 내용은 개회식에서 공개되겠지만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열리는 행사인 만큼 양국 경제협력이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근 경색일로에 있는 양국간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양국 경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자연스럽게 발휘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경제인회의를 계기로한·일 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경제인들은 15일 행사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교과서 왜곡 및 독도문제 등에 대한 양측 경제인 대표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8명의 일본측 대표단은 15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 일본 정부 또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회장,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또 일본에선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120여 명이 참가한다.

박양수기자 yspark@

과천청사 오늘-14일

한덕수부총리는 오후 3시30분 신라호텔 2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한·일간 대표 경제단체의 연례회의로 양국간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산자부 조환익 차관은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단을 면담한 후, 오후 2시에 자관회의(정부중앙청사)에 참석한다.

김신환 기자 shkim@stockdaily.co.kr 스타크데일리 2005-04-14 08:10:04]

한 부총리 “한일 기업간 교류협력 확대 필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기술이전, 투자증가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축하를 통해 “올해는 한일 양국간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는 해이며, 양국정부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하고 한 차원 높은 교류협력관계 설정의 계기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시도 새로운 전기가 될 FTA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한일 양국간 교역에 있어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불을 넘어섰고,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무역 역조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추세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은 670억불로서 일본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수입1위, 수출3위)이며, 2대 투자국이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9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과 한일 FTA 협상의 활성화와 부품소재분야의 협력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며 “양국이 그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상속한 자세로 임한다면 양국간 협력은 흔들림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1월 한일,일한경제위원회에서 양국간의 무역, 기술협력, 경제협력 등을 위해 민간경제인회의를 매년 1회 개최기로 합의,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올해 37회는 한국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 회의는 한일 양국 경제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집약해 양국 기업인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상호교류를 심화시키는 대화의 장으로, 양국 경제계 관심사항을 상호확인하고 민간 업계의 의견이 양국 정부, 유관기관에 전달되는 창구역할 수행하고 있다. 정리. 노윤진 (jing@mofc.go.kr)취재 2005.04.15

한·일 경제인회의 "韓·日 FTA 연내 체결을"

[세계일보 2005-04-15 21:58:34]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됐다.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 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 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의 연내 체결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인들이 모여 뜻깊은 회의를 개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토 유조 일본 측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솔직하고 열의에 찬 의견교환이 오가는 등 양국 간 흐름을 털어놓는 자리였다"고 자평했다.

반진기 기자 jkmin@segye.com

“한일 FTA 체결 노력”…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채택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가 15일 공동성명을 채택, 이들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와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막때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당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나아가 양국 국민도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경제인들의 각별한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는 공동인식을 명기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성명은 또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체결이 요구되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기대 표명도 담았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상공사태를 전범산업 산업 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문화 교류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광·레저 개발과 정부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한국인의 일본 단기체제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철강과 시멘트 등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한일 경제 협회, "왜곡 교과서 지원은 개인차원

아사히 맥주 세토 유조 상담역, "기업차원 지원 아니다" 강변

조석래 한일 경제인회장과 세토유조 회장은 오늘 제37차 한일경제인회의가 폐막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 경제인들이 협조해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두회장은 한일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양국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측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 맥주 상담역은 일본 기업이 왜곡 교과서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역모 교과서 지원은 기업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세토 회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일 관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시기에 일부 사람들의 인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제인으로서 감내하기 힘들다"며 "한국 경제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일본 경제계 인사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세토 유조 한일경제인회 회장(15일 제 37차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독송출 기자/노컷뉴스)

한일 경제인회의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 FTA 연내 타결위해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에 알려져 있기로는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폭이다 한국은 6-70%개방요구를 하고 있으나 일본은 50%이상 곤란하다고 한다. 개방폭을 대폭 늘리는 부분 건의할 것인가?

=(세토회장)양국경제인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보면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농수산물재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양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협상에 임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있다. 어려운 문제일 수록 솔직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치분야에서는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이 논란이다. 국민적 정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두분의 견해는?

=(조석래 회장)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 많이 했다. 우리는 비즈니스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고 자연히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양국민이 가까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경제인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자, 어떻게 하면 쉽게 해소할 수 있는가도 많이 논의했다. 솔직한 대화로 흠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경제인회의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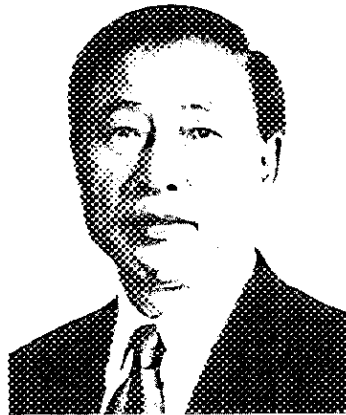
=(세토) 2002년부터 스포츠와 문화교류하면서 한일 관계는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경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대한투자도 23억달러를 넘어섰다. 이같이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좋은 시기에 일부 사람들의 언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제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경분리라고 하지만 양쪽 다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정치적 관계도 지원할 수 있는 가를 도모하는 것이 경제인의 사명이다. 또 국민감정 상대방 한국 여러분의 감정 헤아리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장에 서서 겸허하게 의견개진하고 관계 개선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틀동안 한국 경제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귀담아 들어서 일본 경제계 요인들에게 전달하겠다.

◆정경분리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일본 경제인들이 새역모를 지원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 만들어 갈 수 있나? 일본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있는데 일본 재계 어떻게 생각하나?

=(세토) 솔직히 말해 새역모 모임에 일본 경제인들은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저희 회사(아사히 맥주)도 중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인터넷 통해 퍼졌다. 저희 회사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할 수 있다. 열거된 기업중에서도 사실무근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들었다. 저희 회사는 실제로 그러한 지원을 전혀 안하고 있다. 회사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응원하는 것 없다. 만약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쪼록 진실 여부를 조사해서 더욱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CBS경제부 임형심 기자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한·일 경제인 "연내 FTA 체결하겠다"(종합)



아시아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한일관계를 경제협력관계로 완화시키겠다.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열렸던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측 단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매우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말문을 연 뒤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려속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간 협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력사업, 청소년 교육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양국 경제인들이 합의를 도출했다"며 "특히 한일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강한 열의를 갖고 연내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의 EU처럼 아직까지 아시아에서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아시아는 물론 한국,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체마련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교과서 왜곡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양국관계에 대해 "회의를 통해 양국 경제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측 세토 유조 단장(아사히 백주 상남역)도 "양국의 관계가 상당부분 악화되고 있지만 일본 경제인들은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기대하고 반기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15일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일문일답이다.

- 독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국민적 정서 역시 상당부분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양국 경제인 대표로서 어떠한 심정인가 ▲ (조석래)회의개최에 앞서 걱정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인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경제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세토유조) 2002년부터 스포츠, 문화교류를 위주로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본의 대한투자는 23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양국의 관계는 경제인으로서 참기 어려운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 양국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FTA에 관해 연내타결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폭'이다.

한국은 57~58%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50%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에 돌아가 개방폭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가? ▲ (세토)양국 경제문제에 있어서 농수산물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잘 안다.

개방폭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일본 경제계의 유력인사들이 새 교과서 후원자로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자고 해놓고 일본 경제계가 왜곡된 새 교과서 후원자로 나선 것에 대해 해명해달라. ▲ (세토)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인들은 새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아사히 백주가 지원했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또 새교과서를 지원하고 있다는 기업들 중 대부분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일본 회사나 그룹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에서 실행했을 것이다. 박현미 기자 painmi@stockdaily.co.kr 스타크데일리 2005-04-15

20:32:31

한일 경제인, 양국정부에 냉정한 대처 요구



[SBS 2005-04-15 19:55:20]

<8뉴스> 한일 두 나라 경제인들은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것을 두 나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된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경제인들은 또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감은 여전히 높다. 데라다 데루스케 외국기자클럽 이사장.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냉랭해진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韓·日 FTA 연내체결 필요"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장(아사히맥주 상담역)은 15일 "아사히맥주 등 일본 기업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 결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 부근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새역모에)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밝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새역모는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의 '몸통'으로 후소샤 출판의 왜곡 교과서 채택에 앞장서는 단체다. 특히 한국 등 주변국의 교과서 왜곡 반발에 내정 간섭으로 맞서며, 일본 문부성을 측면 지원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새역모에 참여하는 일본 재계 인사로는 아이카와 겐타로 미쓰비시중공업 회장과 나카조 다카노리 아사히맥주 전 회장 등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일 경제인들은 더없이 악화된 최근의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외교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해 줄 것을 양국 정부와 국민에 주문했다.

제37회 한·일, 일·한경제인회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민도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호소하고 경제인들도 이를 위한 역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 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김정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일본 경제계 왜곡 교과서 지원 없다" (상보)

[머니투데이 2005-04-15 19:12:26] 최정호기자

왜곡 역사 교과서로 문제가 된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일본 기업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이 강조했다.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측 단장으로 참석한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일본 경제인들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토 유조 단장은 "아사히맥주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며 "아사히맥주는 안했다고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사히맥주와 같이 지목된 기업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유조 단장은 "일부의 언동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저해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인 입장에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며 "일본 경제계에서 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제차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개인적 지지일 뿐"이라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일본 재계 인사가 새역모 후원자로 등록돼 있다면 그 것은 경제인이 아니라 자언인 자격으로 참여했을 뿐 이라는 것이다. 일본 새역모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말까지 아이카와 겐타로 미쓰비시중공업 회장과 나카조 다카노리 아사히맥주 전회장 등의 이름이 후원자로 등록돼 있었다.

일본측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FTA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유조 단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측 대표인 조석래 회장도 "양국 정부에 연내 타결을 강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일FTA 연내 타결 △산업부역회의 개최 △수출촉진단 파견 협력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한일 고교생 교류 확대 △중소기업간 상호보완사업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마무리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석래 단장 등 145명이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세토 유조 단장 등 103명이 참석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경제신문)>

日 세토회장 "'새역모' 지원있다면 개인 차원"-1

[연합뉴스 2005-04-15 19:05:45]

그룹이나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고흥규 기자 = 아사히맥주 상담역인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15일 일본 후소사를 지원하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 일본 경제인들의 참여 논란과 관련, "그런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불과하지 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응원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세토 회장은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경제인회의 폐막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사히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새역모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설이 유포됐으나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회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열거된 기업 중에서도 사실무근의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진실 여부를 더 조사하고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올해 안에 FTA 체결 독도갈등 냉정 대처”

[조선일보 2005-04-15 19:03:12] 韓日경제인 200명 한복소리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은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일 양국의 재계인사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째 열린 한일(韓日)·일한 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일 재계인사들은 공동 성명에서 “(독도 문제 등) 최근 부상한 양국 간 정치·외교적 갈등 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고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하고, 양국 국민도 경제·문화 등 비(非)정치적인 면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 맥주 상담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일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다.

한·일 제국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며 “올해 내에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한국측 기대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시 데라나 테루스케(寺田輝介) 전 주한일본 대사는 자신의 대사 시절 경험을 들어 “한·일 관계에는 업다운(up-down)이 있다”며 ‘사이클’론을 제기했다. 즉 일본 문화 개방 초기였던 2000년과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에는 한·일 관계가 좋았으나 2001년, 2005년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 그는 “2001년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7번이나 불러 갔었다”고 회상했다.(조형래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hrcho.chosun.com])

한일 경제인, FTA 체결 노력 강조 [YTN 2005-04-15 18:57:00]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던 제 37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오늘 오후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했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첫걸음'이라며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 Digital YTN. 김진호

“韓·일 FTA 연내체결 독도문제 등 냉정처리” 2005.04.15. 18:39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 최근 한·일간 이슈에 대해 양국 정부와 국민의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14~15일 이틀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우방이며 양국 정부는 최근의 정치·외교적 갈등에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폐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본과별 회의와 전체회의를 가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산업무역회의 개최, 일본 방문 수출촉진단 파견 협력,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한·일 교교생 교류 확대, 중소기업간 상호보완사업 협력 등에 합의했다.

경제인들은 또 양국 국민이 경제와 문화 등 비 정치적인 면에서 상호 발전하는 데 세계가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한·일 연대를 만들기 위해 단기체제 비자 면제 등 인적교류 조건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일 FTA가 조속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농산물 분야 자유화와 관련, 우리 측은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대표적인 지일(知日)파 인사인 포스코 박태준 명예회장과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이 최근의 대일 관계와 관련 상반된 입장을 표명,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박 전 회장은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잘 하고 있으며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리는 최근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며 거듭 이해를 표시했다.

이에 반해 공 전 장관은 15일 전체회의 연사로 나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 전 장관은 “한·일 양국은 자유우방이자 사실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이웃인데 최근의 대응은 이러한 자산을 실속 없이 내팽개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별 영향 없고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률도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환상화해 국민에게 전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shjung@kmib.co.kr 국민일보

“韓日 정치-외교 갈등 미래지향적으로 풀길”

[동아일보 2005-04-15 18:31:00] [동아일보]

제37회 한일(韓日)경제인회의에 참석한 두 나라 경제인들은 15일 “최근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우호적인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둘째 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일 두 나라 국민들도 경제와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들도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걸음”이라는 공동인식을 표명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선 “사실에 입각해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미래지향적인 진솔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석래(趙錫來) 공동단장 등 145명이, 일본에선 세토 유조(瀬戸雄三) 공동단장 등 103명이 참석했다.

최영혜 기자 yhchoi65@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한일FTA 연내 체결 강력 요구" IM 뉴스 MBC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연내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경제인회의의 폐막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협정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중 newyork@imbc.com] 2005.04.15 18:14 연합뉴스

한일 경제인 "한일FTA 연내 체결 강력 요구"

제 37회 한일(韓日)·일한 경제인회의가 15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인 "한일FTA 연내 체결 강력 요구" KBS-뉴스 '경제' 2005.04.15 17:33

제 37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오늘 오후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일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두 나라간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나라 국민들도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한일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이 두나라간의 관계가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첫 길음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경제인들은 특히 두나라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의 연내 체결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조원진 기자 2005.04.15 (17:33) / 수정 시간 : 2005.04.15 (17:58)

[기자수첩]韓日 경제협력은 강화돼야/유인호기자 파이낸셜 뉴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한·일·일·한 경제인회의'가 막을 내렸다.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기 참석,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경제를 통해 양국이 협력 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다.양국 경제인들은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경제 문제로 확대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냉정한 대처를 주장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로 확산될 경우 그 여파는 충격적이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하나 여전히 일본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40년간 한·일 교역규모는 1965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680억달러로 300배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에 일본 기업의 대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줬고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왔다.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한국

과 일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양국 정상은 정치·외교적으로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만큼
은 협력 관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통상교섭본부 전비호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최근의 한·일 냉각관계를 잠깐 기론한 뒤 대부분의 축사를 경제협력에 할애했다. 노대통령
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야마모토 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대독한 축
하 메시지에서 “한·일 우정의 해를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얻으면서 싱광적으로 이끌어 나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치권이나 재계 할 것 없이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양국간 경
제 관계 재건됨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제
로 먼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기업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간 얽힌 실타래를 풀 것을 기대해본다. yih@fnnews.com 유인호기
자

한일 경제인 "한일FTA 연내 체결 강력 요구"

한일경제인회의 폐막...“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냉정대처”

연합 2005/04/15 경북일보

제 37회 한일(韓日)·일한 경제인회의가 15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
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
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나아가 양국 국민도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
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경제인들의 각별한 역할도 다짐했다.
이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
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는 공동인식을 명기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의 연내 체결이 강력히 요구되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
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에 걸맞
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기대 표명도 담았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성공사례를 전범삼아 산업 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문화 교류에도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관광·레저 개발과 정부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한국인의 일본 단기체재 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철강과 시멘트 등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특히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정치적 통합을 포함하는 종합적 커뮤니티 건설에 앞서 첫 단계로 동북아 문화 커뮤니티(NEACC)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과거지향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따름"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장했다.

한편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세토 유조(瀬戸雄二)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일 본측 대표 8명은 폐막 후 이해찬(李海瓚) 총리를 예방했다

한일경제인 "양국 관계 악화불구 교류 지속"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또 문화산업개발과 정보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5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치뤄진 행사여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양국간 정치, 외교적 갈등이 우호적이었던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양국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보다 형평성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 역시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고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현미 기자 painmi@stockdaily.co.kr 스타크데일리 2005-04-15 16:58:27

韓日경제인 회의 "독도문제 양국정상이 풀어야"

[매일경제 2005-04-15 16:53:01]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은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 관광·레저 개발과 정보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단기 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양국에 촉구했다.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일정을 마쳤다. 공동성명은 "최근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특히 연내 타결을 추진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한·일 FTA 연내 체결 협력을 포함해 △산업무역회의 개최 △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한·일 고교생 교류 △양국 중소기업상호보완사업 등에서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이령 진 문화부 장관은 특히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정치의 통합을 포함하는 종합적 커뮤니티 건설에앞서 첫 단계로 동북아 문화 커뮤니티(NEACC)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라다 테루스케 전 주한 일본대사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통해 악화된 양국관계의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여전"

[머니투데이 2005-04-15 16:31:51]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냉랭해진 한일 정치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일경제인회의에 15일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데라다 테루스케 외국기자클럽 이사장은 "한일 정상 차원에서 해결 방향을 도출하고 합의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6월에 열릴 한일정상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테루스케 이사장은 지난 2000년에 주한 일본대사를 지냈고 지금도 외국기자클럽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통이다.

그는 일본 교과서 문제가 문제됐던 지난 2001년 제임 기간 중 한국 외교부로 부터 7번이나 불러갔으나 결국 그 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상기시

켰다.

데루스케 이사는 "한일 관계는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사이클론"이라며 "리브레터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류와 거울연가로 시작된 한류도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답자의 56%가 한국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데루스케 이사는 "일본의 중년 주부 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의 60% 이상이 친밀감이 있다"며 "최근 서울에 갔더니 일본 언론보도와 달리 위험하지 않고 분위기도 다르더라고 일본인들이 말했다"는 반응도 전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경제신문)

한일 경제인 "한일FTA 연내 체결 강력 요구" 굿데이시사

제 37회 한일(韓日)·일한 경제인회의가 15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나아가 양국 국민도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경제인들의 각별한 역할도 나눴다.

이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는 공동인식을 명기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의 연내 체결이 강력히 요구되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기대 표명도 담았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성공사례를 전범삼아 산업 각 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문화 교류에도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관광, 레저 개발과 정부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한국인의 일본 단기체재 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철강과 시멘트 등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특히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 정치의 통합을 포함하는 종합적 커뮤니티 건설에 앞서 첫 단계로 동북아 문화 커뮤니티(NEACC)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과거지향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따름"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장했다.

한편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일본측 대표 8명은 폐막 후 이해찬(李海瓚) 총리를 예방했다. [연합]

한일 경제인 "한일FTA 연내 체결 강력 요구"(종합)

[연합뉴스 2005-04-15 16:15:44]

한일경제인회의 폐막..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냉정대처"

서울=연합뉴스) 고현규 기자 = 제 37회 한일(韓日), 일한 경제인회의가 15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 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나아가 양국 국민도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경제인들의 각별한 역할도 다짐했다. 이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는 공동인식을 명기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의 연내 체결이 강력히 요구되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 공영의 순환고리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기대 표명도 담았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성공사례를 전범삼아 산업 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문화 교류에도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관광·레저 개발과 정부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한국인의 일본 단기체제 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철강과 시멘트 등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특히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정치의 통합을 포함하는 종합적 커뮤니티 건설에 앞서 첫 단계로 동북아 문화 커뮤니티(NEACC)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과거지향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따름"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장했다.

한편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세토 유조(瀬戸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일본측 대표 8명은 폐막 후 이해찬(李海瓚) 총리를 예방했다.

uni@yna.co.kr (끝) 연합뉴스

한일관계 '사이클론' 제기 [연합뉴스 2005-04-15 15:57:37]

前일본대사 "6월 한일정상회담에 희망"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데라다 테루스케(寺田輝介) 외국기자클럽 이사장이 15일 자신의 대사 경험을 들어 "한일관계에는 업(UP) & 다운(DOWN)이 있다"며 '사이클론'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한일관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결국 발전을 이뤄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먼저 대사 취임초였던 2000년을 회고하며 "당시 일본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영화 '러브레터'가 한국의 20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일종의 일류(日流)였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는 2001년 일본교과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변했다"며 "당시 한국 외교장관 두분한테서 지는 7번이나 와달라는(초치) 부탁을 받았고, 이는 아마 외국대사로는 최고기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가 2001년10월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돼 교과서 문제 해결 로드맵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데라다 이사장은 "2002년은 내가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한 해 가운데 가장 충실한 한해였다"면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이후의 '거울연가' 열풍을 회

고했다.

데라다 이사장은 "바로 그것이 한류(韓流)였던 것 같다"며 한 인구기관이 2천297억엔으로 추정된 `거울연가의 경제적 효과' 수치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본 내 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층이 56.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는 단순한 거울연가 효과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특히 "20대 63.1%, 30대 65.4%가 친밀감을 표시한 것은 친밀감을 가진 층이 중년 주부들뿐만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6월 한일정상회담에 회담을 걸고있고, 결국 양 정상 차원에서 해결 방향을 도출되고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일본경제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74%가 한일 `정부'간 관계가 냉각된다는 의견이었으나 58%는 `한일관계'는 예전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며 "이는 서로 접촉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지난주 서울에 갔다왔더니 언론보도와 다르게 위험하지 않고 분위기도 다르더라'고 일본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uni@yna.co.kr 연합뉴스

한일 경제인 독도문제 불구 교류 가속화 다짐

[매일경제 2005-04-15 15:45:01]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은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도 불구 양국 관계의 지속적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관광,레지 개발과 정보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단기 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양국에 촉구했다.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양국의 경제인들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튿간의 회의일정을 마쳤다.

공동성명은 "최근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특히 연내 타결을 추진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한국측에서는 일본측이 농수산물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제2의경제대국에 걸맞게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자고 촉구했다. 데라다 데루스케 전주한일본대사는 이날 한일간 유학생 증가, 한일투자협정 체결,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서울대 일본연구소 창설 등 최근 구축된 한일간 기초적 토대를 들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악화된양국관계의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철강과 시멘트 등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특히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정치,의 통합을 포

합하는 종합적 커뮤니티 건설에 앞서 첫 단계로 동북아 문화 커뮤니티(NEACC)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과거지향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따름"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장했다.

[김민우 기자]< Copyright (c) 매일경제.

"韓日 정치 외교적 갈등 냉정히 대처해야"

[머니투데이 2005-04-15 14:54:41]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 최근 한일간 이슈에 대해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유우방"임을 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정치, 외교적 갈등에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국민들이 경제와 문화 등 비 정치적인 면에서 상호 발전하는데 재개가 역할을 다 할 것도 다짐했다. 잠재 성장율이 높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한일 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채제비자 면제 등 인적교류 조건 개선에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한일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력도 언급했다. 공동 성명은 연내 FTA타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일FTA가 조식이 되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농산물 분야 자유화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확대 요구만 있었을 뿐 일본측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부품 소재산업 분야 협력도 강조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한일 양국이 사실상 표준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유로운 교류를 지해하는 규정이나 제도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일 경제인들은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일FTA 연내 타결 △산업무역회의 개최 △수출촉진단 파견 협력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한일 고교생 교류 확대 △중소기업간 상호보완사업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또 내년 38회 회의는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석래 단장 등

145명이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세토 유조 단장 등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공로명 전외무, 대일 강경흐름에 일침
[연합뉴스 2005-04-15 11:30:09]

"대일 강경대응 애국애족으로 착각""국제관계 소아병적 접근 횡행"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최근 우리측의 대일(對日) 강경대응 흐름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삼 정부 때 장관을 지낸 그는 15일 오후 열리는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제발표 원고에서 "한일 양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온 자유우방이자 사실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이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자산을 아무런 실속 없이 내팽개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별 영향이 없으며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률도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환상화해 국민에게 전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한 대응으로 치달을 때 과거지향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공 전 장관은 이어 "독도문제로 격앙된 국민 중 일부는 욕석을 가리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애국애족적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호전돼온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엄한(厭韓) 감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해행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전 장관은 "오늘이라는 현재는 과거가 있어 존재하듯 오늘의 연장선상에는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음을 잊어서 안된다"며 "역사적 균형감각"을 강조하고 "이 나라 경영을 맡는 한글세대, 386세대 등에게 묻고 싶다"며 "한일관계도 피동적이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으로 볼 때 미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일협정 자금에 대해 "그 돈이 밑거름이 돼 농민들이 쓰는 김운기와 분무기가 되고 포철이 탄생했으며 강부고속도로가 생겼다"면서 "이런 플러스 효과를 시인하는데 인색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서면 명지대 석좌교수가 과거 한 월간지에서 단계적, 선별적 친일파 청산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 뒤 "국제관계에마저 소아병적 접근법이 횡행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볼만한 일이며,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uni@yna.co.kr 연합뉴스

한일 경제인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냉정대처"

[연합뉴스 2005-04-15 10:23:19]

한일경제인회의 오늘 폐막..FTA 노력 등 공동성명 채택

서울=연합뉴스) 고흥규 기자 = 제 37회 한일(韓日).일한 경제인회의가 15일 오후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한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와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막돼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나아가 양국 국민도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경제인들의 각별한 역할도 다짐한 계획이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는 공동인식을 명기하고 FTA 체결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조하기로 했다.

성명은 또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체결이 요구되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기대 표명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성공사례를 진범삼아 산업 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문화 교류에도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레저 개발과 정부서비스 교류 촉진을 위해 한국인의 일본 단기체재 비자 면제 등 인적 교류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철강과 시멘트 등 각 산업간 양국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특히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정치적 통합을 포함하는 종합적 커뮤니티 건설에 앞서 첫 단계로 동북아 문화 커뮤니티(NEACC)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한일간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과거지향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따름"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장했다.

uni@yna.co.kr (끝)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인사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따른 양국간 긴장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가 40년 동안 양국이 쌓아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대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측 기조 강연에 나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일련의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자칫 수년 간 무르익어 온 우호적 경제관계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9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고지직하고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과감한 협력과 개방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은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진정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중국·일본의 3국 투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선구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소니와 삼성전자가 액정패널 분야 제휴와 특허 공유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를 들면서 "양국간 FTA는 한국의 부품산업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중소 부품산업과의 연계를 심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사 문제의 해법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을 비롯해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하 삼양사회장, 나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단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렌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단역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이 한·일 양국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일 교역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섰고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무역역조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우 기자]

"얼어붙은 한·일관계 경제 협력으로 풀자" [중앙일보 권혁주·이승녕·조용칠]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일 관계에 찬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제37차 한·일 경제인회의'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독도

등의 문제가 경제 협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오히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경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측 단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한,일 경제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면 움해를 양국 우정의 해로 정한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난 36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 우의를 다져온 경제인 회의를 통해 한층 높은 협력 관계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을 대표한 세토 유조(瀬戸雄三) 아사히맥주 상단역(일,한경제협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돌아가면 일본 정치계에 한국의 분위기를 잘 전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터키를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전비호 외교통상부 아태통상심의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된다"며 "과거사 문제를 술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한,일 관계를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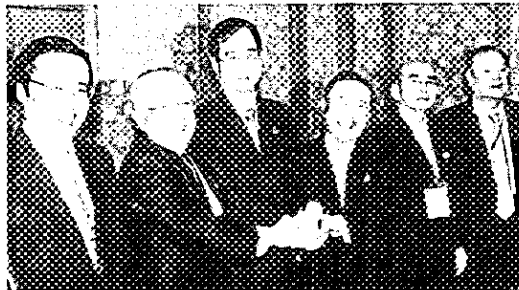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축사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두 나라의 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축사는 야마모토 에이지(山本榮二)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 공사가 대독했다. 이명박 서울 시장도 주최 측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40년 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될 때 대학생이던 나는 과거 청산이 먼저라며 수교에 반대했다"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조석래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쿠다 히로시(奥田碩) 일본 게이단련(經團聯) 회장, 사메시마 후미오(鮫島章男) 태평양 시멘트 사장 등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권혁주,이승녕 기자 woongjoo@joongang.co.kr

사진=조용길 기자 youngcho@joongang.co.kr

▶권혁주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snuphy/>



[중앙일보 2005-04-15 05:20:06]

“韓·日 FTA 연내체결 필요”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장(아사히맥주 상담역)은 15일 “아사히맥주 등 일본 기업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 결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 부근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새역모에)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밝히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새역모는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의 ‘몸통’으로 후소사 출판의 왜곡 교과서 채택에 앞장서는 단체다. 특히 한국 등 주변국의 교과서 왜곡 반발에 내정 간섭으로 맞서며, 일본 본부성을 측면 지원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새역모에 참여하는 일본 재계 인사로는 아이카와 겐타로 미쓰비시중공업 회장과 나카조 다카노리 아사히맥주 전 회장 등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일 경제인들은 더없이 악화된 최근의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외교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해 줄 것을 양국 정부와 국민에 주문했다.

제37회 한·일, 일·한경제인회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민도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호소하고 경제인들도 이를 위한 역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 FTA 추진과 관련, “한·일 FTA는 양국이 21세기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관계로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김경부 기자 golders@seoul.co.kr korearextar@hanmail.net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연내 FTA 체결을”

제37회 한일(韓日)·일한 경제인회의가 15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부상한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우호적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 정부는 이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양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각기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의 연내 체결이 강력히 요구되며, FTA 체결을 통해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분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 [SBS] 한일경제인회의, 한일관계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

"연내 한·일 FTA 체결 양국 기업인 적극 노력"

[중앙일보 2005-04-16 05:26:14] [중앙일보 권혁주, 이승녕]

한·일 세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제37차 한·일경제인회의가 15일 폐막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올해 안에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도록 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FTA를 바탕으로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두 나라 경제인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부품소재, 문화, 서비스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고교생의 교류를 늘리는 등 두 나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인적 교류 확대 차원에서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토록 양국 정부에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해온 운명적 이웃"이라며 "지금의 정치·외교적 갈등에 대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냉정히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오쿠다 히로시(奥田碩) 일본 게이단련(經團連) 회장(도요타 자동차 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제국은 양국 관계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있으나 (쉽지 않아)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양국 경제인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기업 간 협력 방안 외에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다.

공노병(전 외무부 장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15일 초청 강연에서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시정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 소장은 또 "일본은 '아시아에 손해와 고통을 준 과거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일본 외신기자클럽 이사장(전 주한 일본대사)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 고교가 늘어나는 등 일본에서 친한(親韓) 감정이 꾸준히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247개 교로 영어에 이어 둘째로 많다는 것이

다. 그는 또 "2001년에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었으나 그해 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풀렸다"면서 "한·일 관계는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라다 이사장은 "최근 한국을 다녀온 일본 사람들은 반일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주.이승녕 기자 woongjoo@joongang.co.kr

▶ 권혁주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snuphy/>

"일본 기업들, 새역모 지원 안해"

[중앙일보 2005-04-16 05:25:28] [중앙일보 권혁주]

"일본 기업들은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다."

14,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차 한·일 경제인회의에 일본 측 단장으로 참석한 세토 유조(瀬戸雄三, 사진) 일·한 경제협회장(아사히 맥주 상담역). 그는 15일 오후 폐막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가 속한 아사히 맥주도 새역모를 지원한다고 인터넷 등에 유포됐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아사히 맥주 고위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나카조 다카노리(中條高德)가 교과서 개정 모임의 개인적인 후원자인데, 그게 아사히 맥주가 모임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와전됐다는 것이다. 세토 회장은 "나카조에게 역사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아사히 맥주의 직함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아사히 맥주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세토 회장은 "많은 일본 기업이 아사히 맥주와 같은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새역모를 지지하는 일부 기업인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 차원일 뿐 기업들은 새역모를 후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인 대다수는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데 일부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동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역사 인식 문제를 대화와 외교로 해결하지 못하고 '폭발' 상태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 권혁주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snuphy/>

"對日강경대응, 애국애족 착각" 공로명 前 외무, 정부 대응책 절타

(연합) 2005/04/16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최근 우리측의 대일(對日) 강경대응 흐름을 강한 이조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삼 정부 때 장관을 지낸 그는 15일 오후 열리는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제발표 원고에서 "한일 양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온 자유우방이자 사실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이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자산을 아무런 실속없이 내팽개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별 영향이 없으며 왜곡된 역

사교과서 채택률도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환상화해 국민에게 전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 전 장관은 이어 "독도 문제로 격앙된 국민 중 일부는 욕석을 가리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애국애족적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호전돼온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엄한(厭韓) 감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해행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전장관은 '역사적 균형감각'을 강조하고 "이 나라 경영을 맡는 한글세대, 386세대 등에게 불고 싶다"며 "한일관계도 피동적이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으로 볼 때 미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경제인회의, 독도문제 한일 경험 무너뜨려서는 안돼

[매일경제 2005.04.14 16:14:01]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인사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따른 양국간 긴장관계에임메이지 받고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3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가 지난 40년동안 양국이 쌓아온 경제발전의 토대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대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한국측 기조강연에 나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일련의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자칫 수년간 부르익어 온 우호적 경제 관계에 악영향이 생기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들어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9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과감한 협력과 개방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한일 관계는 진정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 투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를 동아시아의 세계의 선구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오쿠다 회장은 특히 소니와 삼성전자가 액정 패널 분야의 제휴와 특히 공유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를 들면서 "양국간 FTA는 한국의 부품산업에타격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 중소 부품산업과의 연계를 심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측에서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을 비롯해,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나용산신한금융지주 회장, 유상부 포스코 고문,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등 130여명이참석했고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막축사를 했다.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세토 유조 아사히맥주 상담역,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
단련 회장, 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담역
이 한·일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15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최근 검색된 양국관계가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일 양측은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삼성전자 윤종용부회장 ‘한일 경험’ 역설 [경향신문 2005-04-17 17:40:17]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일간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부회장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한·일 교역규모는 1965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6백80억달러로 300배
이상 늘어났고 일본 기업의 대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은 양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성과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제시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해 2백44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기피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第37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05年 5月 發行

編輯兼發行人 許 南 整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821 서울市 江南區 論峴2洞 112-15番地 5F
TEL : 02-3014-9888, 9866 FAX : 02-3014-9899